

소외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 독거노인,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족, 미혼모가족 대상으로 －

2008. 10. 7

국회의원 임 두 성

‘나 홀로 가족’의 수는 1985년 66만 가구에서 2000년 222만 가구로 15년 사이에 세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가족 등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한 가족이 증가하여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외가정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단절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분열과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개개인의 삶이 고달픈 상황에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튼튼하다면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가족을 지키고 살려내는 것은 우리 사회에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며,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자료집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족, 미혼모가족의 생활실태와 기존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같이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집이 가족정책 담당자들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사회의 소외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국회의원 임 두 성

I. 가족형태의 다양화	1
1. 우리나라 가족형태 변화 양상	3
가. 가족의 정의	3
나. 가족구조의 변화	4
2.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요인	11
3. 소외가족의 개념 및 현황	14
II. 소외가족 실태	17
1. 독거노인 현황	19
가. 독거노인 현황	19
나. 독거노인 생활실태	25
2. 조손가족 현황	48
가. 조손가족 현황	48
나. 조손가정 생활실태	50
3. 한부모가족 현황	67
가. 한부모가족 현황	67
나.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70
4. 소년소녀가족 현황	77
5. 미혼모 가족 현황	82
가. 미혼모 가족 현황	82
나. 미혼모가족 생활실태	86
III. 소외가족 지원정책 및 문제점	93
1. 독거노인 지원정책 및 문제점	96
가. 독거노인 지원정책 및 사업	96
나. 지역별 독거노인 복지 수요 파악 미흡	101

다. 복지서비스 공급 주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부재	104
라. 최저생계비 지원 부족	108
마. 복지서비스 인력 부족	108
2. 조손가족 지원 정책 및 문제점	111
가. 조손가족 지원 정책 및 사업	111
나. 조손가족 지원근거 법령의 부재	113
다. 최저생계비 지원 부족	114
라. 기초노령연금 지원 미흡	116
마. 조손가족 지원 프로그램 미흡	117
3.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및 문제점	121
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및 사업	121
나. 보호대상 선정의 문제	125
다. 모자보호시설의 문제	126
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미흡	127
마. 여성한부모의 고용불안정 문제	128
4. 소년소녀가족 지원정책 및 문제점	129
가. 소년소녀가족 지원 정책 및 사업	129
나. 기초 생계비 부족의 문제	132
다. 교육문제 및 상담문제	133
5. 미혼모가족 지원정책 및 문제점	136
가. 미혼모가족 지원 정책 및 사업	136
나.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 부족	137
다. 주거문제	138
라. 미혼모의 재교육 및 취업 지원 미흡	139
마. 미혼모 예방정책 부재	140

IV. 해외 정책 사례 143

1. 미 국	145
가. 독거노인 지원 정책	145
나. 조손가족(소년소녀가족) 지원정책	146

다. 미혼모가족 지원정책	147
2. 영 국	151
가. 미혼모가족 지원정책	151
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51
3. 일 본	155
가. 일본의 소외 가족에 대한 정책 및 입법례	155
4. 러시아	160
가. 저소득 1인 가구 지원 관련 러시아 입법례	160
 V. 소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163
1.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65
2. 경제적 지원의 현실화	166
3. 전문적 상담 및 정서적 지원 확대	167
4. 가족지원 서비스의 다양화와 확대	169
5.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170
 VI. 참 고 문 헌	171

소외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가족형태의 다양화



1. 우리나라 가족형태 변화 양상

가. 가족의 정의

- 머독(G. P. Murdock)¹⁾은 가족을 “공동거주, 경제적 협력, 그리고 생식의 특성을 갖는 사회집단”이라 정의함. 이는 가족은 생물학적 조건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일차적 공동체 단위이며,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의식주 및 성적 욕구의 충족 등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단위로 보는 구조기능론적 입장에서 내린 정의임.²⁾
- 한국의 전통적 가족은 ‘부계의 초시간적 제도체’로 정의됨. 즉 구성원의 출생이나 사망 또는 결혼 등에 의하여 변동이 있더라도 부계 혈통의 동일성은 여전히 계승되어간다고 생각하는 제도로 봄.³⁾
- 서구사회에서의 가족은 ‘혈연, 결혼과 입양에 의해 관련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생물학적이고 구조적인 관계’로 정의되어왔음.(Zimmerman, 1988, 1992)
- 근대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심성의 변화와 연결됨.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지지에 기반을 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간에 기대를 하는 구성’이 가족이고, 그들의 삶의 유형(arrangements)과 관계없이 ‘상호 책임감, 친밀감과 계속적인 돌봄을 주고받는 것’으로 정의함.(Burant, 1989; 기든스, 1997)

1) G. P. Murdock, Social Structure (Macmillan, 1949).

2) 조광영, 한국의 빈곤과 가족해체에 관한 연구, 2003.

3)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1982.

- 후기근대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은 다양한 혹은 비전통적인 가족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시함.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부부, 혹은 파트너와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서로가 같이 살고 돌보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으로 부르고 선택과 보호를 강조함.(Gutis, 1989)
- 부부와 자녀중심의 혈연 혹은 법적 관계를 중시하던 전통적 의미의 관계를 넘어서 최근에는 ‘친밀한’ 관계의 의미가 가족의 중요한 기준으로 대두되고 있음.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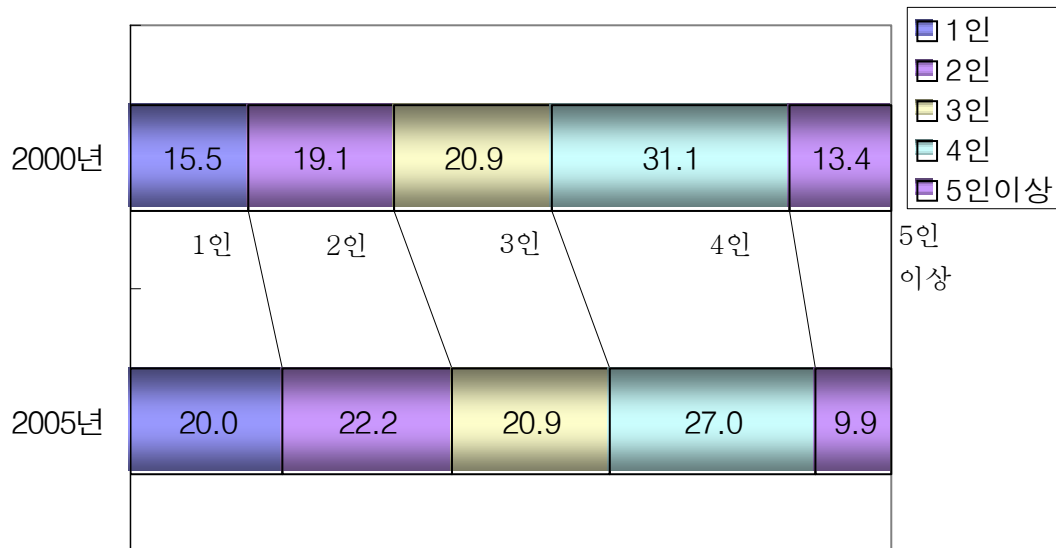
나. 가족구조의 변화

-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와 1인가구 및 1세대가구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1인가구와 1세대가구 중 부부가족 비율의 증가, 3세대이상 가족 비율의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음.
- 가구원수별 가구규모는 2000년에 비해 4인 이상 가구의 증가율은 감소한 반면 1인 가구, 2인 가구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2004.

• • 가구원수별 가구규모 • •

(구성비, %)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6.7.

□ 일반가구 중에는 주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2세대 가구의 비중이 55.4%로 가장 많으며, 1세대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2000년에 비해 1세대 가구와 2세대 가구는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는 감소함.

- 1세대가구 (26.6%증가) • 3세대가구 (7.1%감소)
- 2세대가구 (1.3%증가) • 4세대이상 가구 (27.6%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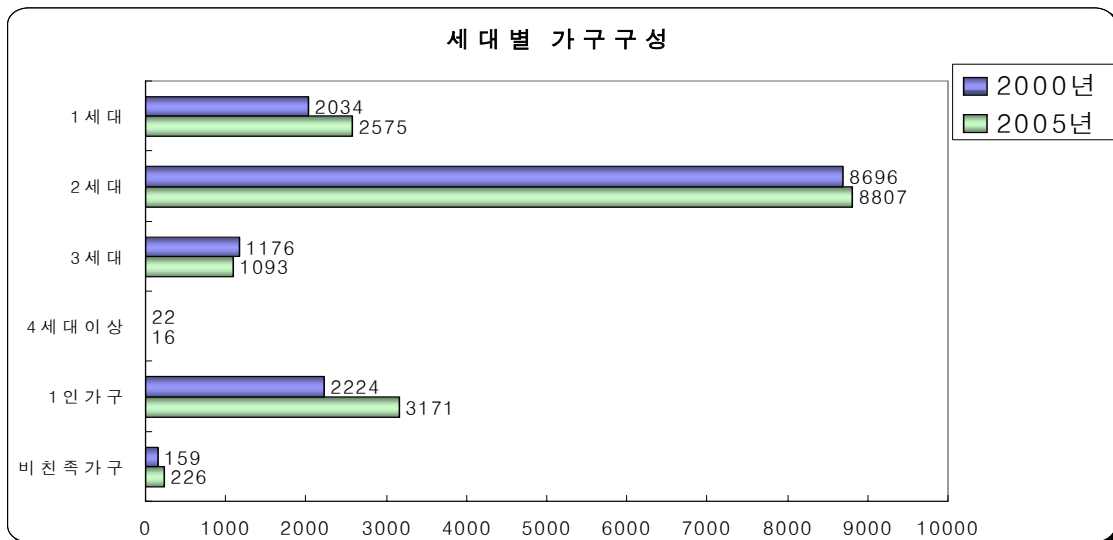
□ 2세대 가구 중 가장 대표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자녀'가구가 670만2천 가구로 2000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한부모+자녀'가구는 21.9% (24만6천가구), '조부모+손자녀'가구는 28.5% (1만3천가구) 증가하였음.

• • 가구 구성 및 가족형태 • •

(단위 : 천가구,%)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증 감	증감률
계		14,312	(100.0)	15,887	(100.0)	1,575	11.0
친 족 가 구	· 1세대가구	2,034	(14.2)	2,575	(16.2)	541	26.6
	· 2세대가구	8,696	(60.8)	8,807	(55.4)	111	1.3
	부부+자녀	6,892	(48.2)	6,702	(42.2)	-190	-2.8
	한부모+자녀	1,124	(7.9)	1,370	(8.6)	246	21.9
	조부모+손자녀	45	(0.3)	58	(0.4)	13	28.5
	· 3세대가구	1,176	(8.2)	1,093	(6.9)	-84	-7.1
	· 4세대이상가구	22	(0.2)	16	(0.1)	-6	-27.6
1 인 가 구		2,224	(15.5)	3,171	(20.0)	946	42.5
비친족 가구		159	(1.1)	226	(1.4)	67	41.9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6.7.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6.7.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317만1천 가구로 전체가구(15,887천 가구)의 20.0%이며, 5년 전 222만4천 가구에서 94만7천 가구(42.5%) 증가하였음. 1인 가구 중 여자 가구가 175만3천 가구(55.3%)로 남자 가구 141만8천 가구(44.7%)보다 많음.

- 1인 가구 비율은 90년 9.0%, 95년 12.7%, 2000년 15.5%, 2005년 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5년 전에 비해, 1인 가구 증가율은 42.5%로 전체가구 증가율(11.0%)보다 높은 수준임.
-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연도별 1인 가구 증가율은 90년 54.5%, 95년 60.8%, 2000년 35.4%, 2005년 42.5%로, 2000년에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음.

• • 1인가구 규모 및 추이 • •

(단위 : 천가구, %)

	1985		1990		1995		2000		2005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가구	9,571	20.1	11,355	18.6	12,958	14.1	14,312	10.4	15,887	11.0
1인가구	661	72.7	1,021	54.5	1,642	60.8	2,224	35.4	3,171	42.5
비율	(6.9)		(9.0)		(12.7)		(15.5)		(20.0)	
남자	246	79.6	431	75.3	711	67.8	945	32.9	1,418	50.0
여자	415	68.8	590	42.2	932	57.8	1,279	37.3	1,753	37.0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6.11.

-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97만8천 가구(30.8%)로 가장 높고, 20대 67만9천 가구(21.4%), 30대 629천 가구(19.9%), 40대 47만4천 가구(15.0%)순임. 5년 전 대비, 연령별 1인가구의 증가율은 40대가 60.7%로 가장 높고, 다음이 30대 51.6%, 50대 48.7% 순임.
- 혼인상태별 분포는 미혼이 142만7천 가구(45.0%)로 가장 많고, 사별 100만2천 가구(31.6%), 이혼 37만3천 가구(11.8%), 유배우 36만8천 가구(11.6%) 순임. 5년 전 대비, 미혼 1인가구는 47만 가구(49.1%) 증가하고, 사별 22만1천 가구(28.3%), 이혼 15만4천 가구(70.5%), 유배우 10만1천 가구(37.9%) 증가함.

• • 연령 및 혼인상태별 1인 가구 • •

(단위 : 천가구, %)

	2000		2005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2,224	100.0	3,171	100.0	947	42.5
15~19세	47	2.1	44	1.4	-2	-4.6
20~29	514	23.1	679	21.4	165	32.0
30~39	415	18.7	629	19.9	214	51.6
40~49	295	13.3	474	15.0	179	60.7
50~59	246	11.1	366	11.5	120	48.7
60세이상	707	31.8	978	30.8	271	38.4
미혼	957	43.0	1,427	45.0	470	49.1
유배우자	267	12.0	368	11.6	101	37.9
사별	781	35.1	1,002	31.6	221	28.3
이혼	219	9.8	373	11.8	154	70.5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6.11.

□ 1인 가구 3,168천 가구 중 취업 중인 1인가구는 169만8천 가구(53.6%), 미취업은 146만8천 가구(46.3%)임. 5년 전 대비, 취업 중인 가구는 46만1천 가구(37.2%) 증가하고, 미취업은 48만3천 가구(49.0%) 증가함.

□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가 23만6천 가구로 가장 많으며, 증가율도 9만3천 가구(65.7%)로 가장 많이 증가함. 다음 증가율이 높은 직업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 5만7천 가구(63.9%), 전문가 5만9천 가구(49.0%) 순임.

● ● 경제활동별 1인가구 ● ●

(단위 : 천가구, %)

	2000	2005	증감	증감률
계	2,224	3,168	944	42.5
취업	1,238	1,698	461	37.2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1	36	-6	-13.9
전문가	121	181	59	49.0
기술공 및 준전문가	89	146	57	63.9
사무종사자	142	236	93	65.7
서비스종사자	168	218	49	29.4
판매종사자	127	157	31	24.3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184	209	25	13.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28	162	34	26.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12	167	55	48.8
단순노무종사자	123	177	55	44.8
기타	2	4	2	-
미취업	985	1,468	483	49.0

주) 계에는 취업여부 미상, 취업에는 직업 미상 포함

표본항목 집계결과로 전수집계 1인가구수와 일부 차이남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6.11.

□ 1인가구의 거주종류는 단독주택이 205만6천 가구(64.8%)로 가장 많고, 아파트 66만8천 가구(21.1%), 다세대주택 16만9천 가구(5.3%), 오피스텔 11만 가구(3.5%) 순임. 5년전 대비, 다세대 주택·오피스텔 거주비율이 각각 3.3%p, 3.0%p 증가하고,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5.5%p 감소하였음.

□ 점유형태는 월세비율이 35.6%, 자기 집 31.1%, 전세 24.0%이며, 5년 전 대비 월세비중은 8.3%p(27.3%→35.6%) 증가하고 기타 점유형태는 감소함.

• • 거처종류 및 점유형태별 1인가구 • •

(단위 : 천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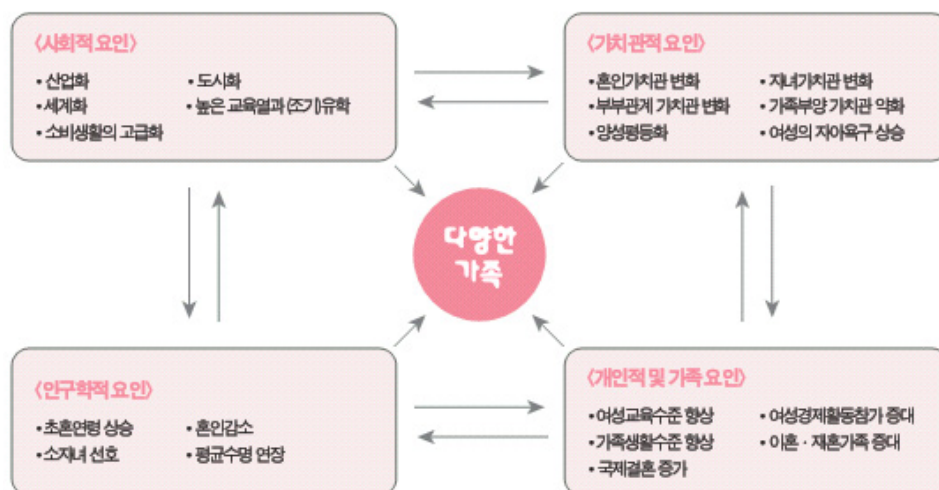
		2000		2005		증감	
			구성비		구성비		%p
계		2,224	100.0	3,171	100.0	947	-
거 처 종 류	주택	2,191	98.5	3,032	95.6	841	-2.9
	·단독주택	1,563	70.3	2,056	64.8	493	-5.5
	·아파트	407	18.3	668	21.1	261	2.8
	·연립주택	74	3.3	64	2.0	-10	-1.3
	·다세대주택	44	2.0	169	5.3	125	3.3
	·비거주용건물내주택	103	4.6	75	2.4	-28	-2.3
	주택이외거처	33	1.5	139	4.4	105	2.9
	·오피스텔	10	0.5	110	3.5	100	3.0
	·기타	23	1.0	28	0.9	5	-0.1
점 유 형 태	자기집	726	32.6	986	31.1	260	-1.5
	전세	645	29.0	762	24.0	117	-4.9
	월세	608	27.3	1,129	35.6	521	8.3
	사글세	116	5.2	141	4.4	25	-0.8
	무상	129	5.8	153	4.8	24	-1.0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6.11.

2.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요인

-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요인과 혼인가치관 변화, 양성평등화, 가족부양 가치관 악화 등의 가치관적 요인, 혼인감소, 평균수명 연장 등의 인구학적 요인, 여성교육 수준 향상, 이혼·재혼가족 증대 등의 개인적·가족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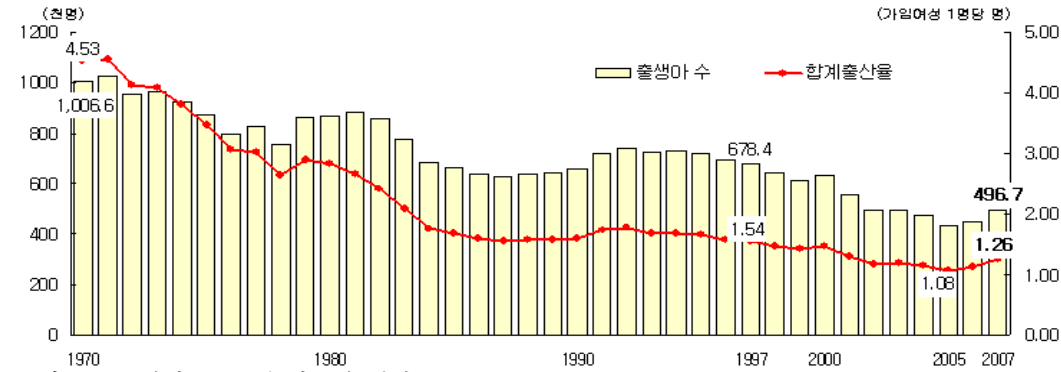
• •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정 • •



※ 자료 : 김승권,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2007.5.

- 가족형태의 변화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0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4년 1.16명, 2005년 1.08명, 2006년 1.13명, 2007년 1.26명 수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

● ●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



※ 자료 : 통계청, 2007 출생통계 결과, 2008.8.

□ 출산력 저하는 고령화 문제로 이어져 2000년에 우리나라 총 인구 중 65세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 14.3%로 고령사회, 2026년 20.8%로 초고령 사회로 선진국에 비해 급속히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혼인율은 감소하는 반면 이혼율은 증가추세에 있음. 혼인건수는 1997년 388천 건에서 2007년 345천 건으로 11% 감소하였고, 이혼건수는 1997년 91천 건에서 2007년 124천 건으로 36% 증가하였음.

● ● 총 이혼건수 및 조(粗)이혼율 ●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이혼건수(천건)	91.2	116.7	118.0	120.0	135.0	145.3	167.1	139.4	128.5	125.0	124.6
증 감(천건)	11.3	25.6	1.3	2.0	15.0	10.3	21.8	-27.7	-10.9	-3.4	-0.4
증감률(%)	14.1	28.0	1.1	1.7	12.5	7.6	15.0	-16.6	-7.8	-2.7	-0.4
조 이 혼 율 ⁵⁾	2.0	2.5	2.5	2.5	2.8	3.0	3.5	2.9	2.6	2.6	2.5
혼인건수(천건)	388.6	375.6	362.7	334.0	320.1	306.6	304.9	310.9	316.4	332.8	345.6
증 감(천건)	-46.3	-13.0	-12.9	-28.6	-14.0	-13.5	-1.6	6.0	5.4	16.4	12.8
증감률(%)	-10.7	-3.3	-3.4	-7.9	-4.2	-4.2	-0.5	2.0	1.7	5.2	3.9
조 혼 인 율 ⁶⁾	8.4	8.0	7.7	7.0	6.7	6.4	6.3	6.4	6.5	6.8	7.0

※ 자료 : 통계청, 2007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8.4.

5)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

6)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

- 사회와 경제 환경의 변화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전통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보호 역할의 변화를 가져옴.
- 2003년 전국가족조사⁷⁾에 의하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연령이 낮은 층이 높은 연령층보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덜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이러한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는 가족가치의 변화로 이어짐.
- 따라서 출산율의 저하, 노인인구 증가, 노인부양부담 증가, 이혼율의 증가와 혼인율의 감소, 여성경제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의 기능면에서는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의 약화, 정서적 유대약화 등 복합적 원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독신가족, 무자녀가족, 주말부부가족, 미혼모가족, 재혼가족, 국제결혼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이 등장하고 있음.⁸⁾

7) 김승권,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2007.5.

8)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3.

3. 소외가족의 개념 및 현황

- 다양한 가족형태 증가에 따라 경제적, 정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가족도 증가하는 추세임. 보호를 요하는 소외가족의 형태는 독거노인 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족, 미혼모가족이 있음.
- 2007년도 소외가족 가구현황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은 883,291가구(통계청), 조손가족 62,266가구(통계청), 한부모가족 1,420,790가구(통계청), 소년소녀가족 13,252가구(보건복지가족부), 미혼모가족 2,161가구(보건복지가족부)로 총 2,370,138가구임. 전체 16,417,423가구의 14.4% 수준임.

• • 우리나라 소외가족 현황('07) • •

가족유형		가구수	자료출처	비고
전체가구수		16,417,423	통계청	
소외가족	독거노인	883,291	통계청	
	조손가족	62,266	통계청	
	한부모가족	1,420,790	통계청	
	소년소녀가족	1,630	보건복지가족부	
	미혼모가족	2,161	보건복지가족부	미혼모시설 입소자수
합계		2,370,138		
전체가구 중 소외가족 비율		14.4%		

- 통계청 추계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독거노인 930,572가구, 조손가족 64,501가구, 한부모가족 1,447,168가구로 총 2,442,241가구 임. 소외가구가 전

체 16,673,162가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고, 20년 후 2028년에는 소외가구가 3,919,045세대 19.8%로 5가구 중 1가구가 소외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소년소녀가장가구와 매년 늘어나는 미혼모를 포함하면 소외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 전체가구 중 소외가구 추계현황('00~'30) • •

연도	전체 가구수	소외가구						전체가구 중 소외가구 비율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미혼모	소계	
2000	14,507,010	543,522	45,398	1,136,366	6,229	-	1,731,515	11.9%
2001	14,843,989	589,415	48,168	1,186,648	5,248	-	1,829,479	12.3%
2002	15,170,029	635,033	50,638	1,237,884	4,531	-	1,928,086	12.7%
2003	15,465,163	681,389	53,073	1,286,440	3,994	1,835	2,026,731	13.1%
2004	15,720,436	728,748	55,535	1,331,449	3,504	1,791	2,121,027	
2005	15,971,010	776,996	58,058	1,376,021	2,755	1,970	2,215,800	
2006	16,158,334	834,841	60,057	1,393,515	2,086	1,985	2,292,484	
2007	16,417,423	883,291	62,266	1,420,790	1,630	2,161	2,370,138	14.4%
2008	16,673,162	930,572	64,501	1,447,168	-	-	2,442,241	14.6%
2010	17,152,277	1,021,008	69,175	1,495,223	-	-	2,585,406	
2015	18,191,663	1,250,792	81,846	1,588,473	-	-	2,921,111	
2020	19,011,815	1,512,082	97,985	1,636,839	-	-	3,246,906	
2025	19,593,767	1,894,260	116,287	1,643,878	-	-	3,654,425	
2028	19,800,362	2,160,684	126,447	1,631,914	-	-	3,919,045	19.8%
2029	19,842,705	2,249,912	129,504	1,625,514	-	-	4,004,930	
2030	19,871,144	2,338,354	132,361	1,618,055	-	-	4,088,770	

※자료 : 통계청(독거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2008. 9.

보건복지가족부(소년소녀가정가구, 미혼모), 2008. 9.

II

소외가족 실태

1. 독거노인 현황

가. 독거노인 현황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경제, 의료기술의 발달로 1971년 62.3세, 2000년 76세, 2005년 78.6세에서 점차 높아져 2030년 83.1세, 2050년 86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 기대수명 및 사망자수 추이 • •

(단위 : 세, 천명)

	1971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기대수명 계	62.3	65.7	71.3	76.0	78.6	79.6	81.5	83.1	86.0
남 자	59.0	61.8	67.3	72.3	75.1	76.1	78.0	79.8	82.9
여 자	66.1	70.0	75.5	79.6	81.9	82.9	84.7	86.3	88.9
사망자수	238	278	249	247	246	284	375	465	679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 •

(단위 : %)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8	2020	2026	2030	2050
0~14세	42.5	34.0	25.6	21.1	19.2	16.2	12.7	12.4	11.7	11.4	8.9
15~64세	54.4	62.2	69.3	71.7	71.7	72.9	72.9	72.0	67.5	64.4	53.0
65세+	3.1	3.8	5.1	7.2	9.1	11.0	14.3	15.6	20.8	24.3	38.2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 65세 고령인구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 초고령층 인구가 2005년 현재 676천명에서 2050년에는 2005년의 9배인 6,130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한 체계적 복지체계 마련이 시급함.

• •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추이 • •

(단위 : 천명, 여자 100명당)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65세 이상	991	1 456	2 195	3 395	4 367	5 357	7 701	11 811	16 156
성 비	70.0	59.7	59.8	62.0	65.8	69.2	75.1	79.1	79.0
70세 이상	563	832	1 294	2 014	2 684	3 546	5 120	8 019	12 776
성 비	68.8	51.0	52.6	53.8	57.1	62.0	68.0	73.8	74.9
80세 이상	101	178	302	483	676	952	1 783	2 581	6 130
성 비	50.3	33.6	35.8	39.1	41.4	43.2	51.2	57.6	63.5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동지역 7.2%로 고령화 사회, 읍면지역은 18.6%로 고령사회에 해당됨. 시도별로는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이 17.7%로 인구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되어 있고, 경북 14.4%, 충남 14.2%, 전북 14.2% 순임.

• • 시도별 고령인구 • •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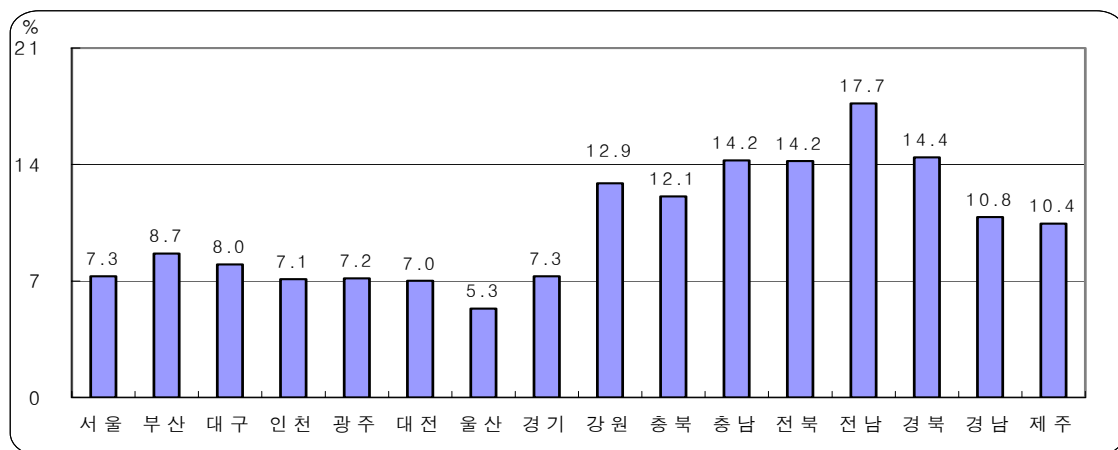
	2000			2005		
	총인구	65세이상	비율	총인구	65세이상	비율
전국	45,985	3,372	7.3	47,041	4,365	9.3
동지역	36,642	2,001	5.5	38,338	2,747	7.2
읍면지역	9,343	1,370	14.7	8,704	1,618	18.6
서울	9,854	535	5.4	9,763	711	7.3
부산	3,655	225	6.2	3,513	304	8.7
대구	2,474	147	5.9	2,456	197	8.0
인천	2,466	137	5.5	2,518	179	7.1

	2000			2005		
	총인구	65세이상	비율	총인구	65세이상	비율
광주	1,351	75	5.6	1,414	101	7.2
대전	1,366	75	5.5	1,439	101	7.0
울산	1,012	41	4.0	1,045	56	5.3
경기	8,938	519	5.8	10,341	753	7.3
강원	1,485	147	9.9	1,461	188	12.9
충북	1,463	142	9.7	1,454	176	12.1
충남	1,840	222	12.1	1,879	268	14.2
전북	1,887	212	11.2	1,779	253	14.2
전남	1,994	271	13.6	1,815	321	17.7
경북	2,716	314	11.6	2,595	374	14.4
경남	2,971	267	9.0	3,041	330	10.8
제주	513	43	8.4	531	55	10.4

※ 자료 : 통계청, 2005인구주택총조사, 2006.11.

□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시도는 울산 5.3%, 대전 7.0%, 인천 7.1%, 광주 7.2% 순임. 전남, 경북, 충남, 전북은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도는 고령인구비율이 7%를 넘어 새롭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 울산은 제외한 모든 시도가 고령 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음.

• •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 •



※ 자료 : 통계청, 2005인구주택총조사, 2006.11.

- 시군구별로는 전체 234개 시군구 중 초고령 사회 시군구는 63개(26.9%), 고령 사회 시군구는 37개(15.8%), 고령화 사회 시군구는 87개(37.2%)임.

• • 고령화 수준별 시군구 • •

(단위 : 개, %)

	2000		2005		증감	증감률
계	234	100.0	234	100.0	-	-
7%미만	84	35.9	47	20.1	-37	-15.8
고령화사회	76	32.5	87	37.2	11	4.7
고령사회	45	19.2	37	15.8	-8	-3.4
초고령사회	29	12.4	63	26.9	34	14.5

※ 자료 : 통계청, 2005인구주택총조사, 2006.11.

- 고령인구의 세대구성별로는 3세대 이상 가구가 7.4%p (30.6%→23.2%) 감소하고, 1세대가구는 4.1%p (28.5%→32.6%) 증가, 1인가구는 1.8%p (16.1%→17.9%) 증가하였음.

• • 세대구성별 고령인구 • •

(단위 : 천명, %)

	2000		2005		증감	
		구성비		구성비		%p
계	3,372	100.0	4,365	100.0	993	-
1세대가구	960	28.5	1,424	32.6	464	4.1
2세대가구	799	23.7	1,075	24.6	275	0.9
3세대가구	1,001	29.7	989	22.7	-12	-7.0
4세대이상가구	29	0.9	23	0.5	-6	-0.4
1인가구	543	16.1	783	17.9	240	1.8
비친족가구	15	0.4	20	0.4	5	0.0
집단가구	25	0.7	52	1.2	27	0.4

※ 자료 : 통계청, 2005인구주택총조사, 2006.11.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2008년 93만 명을 넘어서 오는 2010년이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임. 전체 노인 500만 명 중 19%가 노인

독신가구임. 문제는 독거노인의 대부분이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 있고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사회의 직·간접적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임.

• • 향후 5년간 독거노인 수 예측추이 • •

(단위:천명,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독거노인 수	883	931	976	1,021	1,065
전체 노인수	4,810	5,016	5,193	5,357	5,537
전체노인중 독거노인 비율	18.4	18.6	18.8	19.1	19.2

※ 자료 : 통계청, 추계인구·가구 자료, 2007.

□ 시도별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경기 96,002명(12.3%), 서울 782,708명(12.1%), 경상북도 88,068명(11.3%), 전라남도 84,077명(10.7%), 경상남도 79,702명(10.2%), 전라북도 56,187명(7.2%) 순임.

• • 시도별 독거노인 현황 • •

(단위 : 명)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총계	349,020	542,690	782,708	100%
서울특별시	38,918	65,082	94,855	12.1%
부산광역시	19,447	34,576	54,649	7.0%
대구광역시	12,390	21,521	33,122	4.2%
인천광역시	9,255	16,357	25,449	3.3%
광주광역시	6,806	11,517	17,879	2.3%
대전광역시	4,783	8,479	14,280	1.8%
울산광역시	-	6,837	9,967	1.3%
경기도	32,789	58,153	96,002	12.3%
강원도	15,728	23,733	34,264	4.4%
충청북도	14,221	21,634	31,799	4.1%
충청남도	22,825	34,961	48,956	6.3%
전라북도	28,846	41,851	56,187	7.2%
전라남도	42,848	62,742	84,077	10.7%
경상북도	45,775	65,281	88,068	11.3%
경상남도	45,359	59,514	79,702	10.2%
제주도	9,030	10,452	13,452	1.7%

※ 자료 : 통계청, 2008. 7

- 고령자의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2,419천명(55.4%)로 가장 많고, 사별 1,875천명(42.9%), 이혼 50천명(1.1%), 미혼 22천명(0.5%)순임. 5년 전 대비, 사별은 4.1%p (47.0%→42.9%) 감소하고 유배우는 3.4%p (52.0%→55.4%) 증가하였음. 평균수명 증가 및 남녀 평균수명 차이 감소 등으로 유배우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 혼인상태별 고령인구 • •

(단위 : 천명, %)

	2000		2005		증감	
		구성비		구성비		%p
계	3,372	100.0	4,365	100.0	993	-
미혼	10	0.3	22	0.5	11	0.2
유배우	1,752	52.0	2,419	55.4	668	3.4
사별	1,584	47.0	1,875	42.9	291	-4.1
이혼	25	0.7	50	1.1	25	0.4

※ 자료 : 통계청, 2005인구주택총조사, 2006.11.

- 65세 이상 남자의 경우 유배우가 85%이고 사별이 13.3%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 유배우가 35.9%에 불과하고 사별이 62.5%나 되었음.

• • 65세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현황 • •

(단위 : 명, %)

구분	65세이상인구	유배우	미혼	사별	이혼	미상
1990년						
전체	2,162,239	1,020,269	3,366	1,132,778	5,555	271
남자	810,656	669,476	1,305	137,579	2,230	66
여자	1,351,583	350,793	2,061	995,199	3,325	205
2000년						
전체	3,371,806	1,751,747	10,484	1,583,558	24,612	1,405
남자	1,287,397	1,099,031	3,871	174,244	9,759	492
여자	2,084,409	652,716	6,613	1,409,314	14,853	913

구분	65세이상인구	유배우	미혼	사별	이혼	미상
2005년						
전체	4,365,218	2,419,425	21,500	1,874,695	49,598	0
남자	1,736,346 (100%)	1,475,668 (85%)	7,744	230,544 (13.3%)	22,390	0
여자	2,628,872 (100%)	943,757 (35.9%)	13,756	1,644,151 (62.5%)	27,208	0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06. 12.

통계청, 65세이상 노인의 혼인상태별 현황, 2008. 7.

□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 현상으로 독거노인의 증가는 필연적인 사회현상임. 특히 최근 노인문제의 다양한 부정적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정파탄, 자살, 살인, 독거노인의 방치로 인한 죽음(고독사), 노인의 인권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들은 질병, 빈곤, 고독에 방치돼 있음. 특히 가족과 떨어져 정서적인 유대감도 없이 늙고 병든 몸을 혼자 가늠야 하는 독거노인들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임.

나. 독거노인 생활실태⁹⁾

□ 보건복지가족부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사업실적 및 사업추진체계를 점검·평가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1일 현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수행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내 독거노인 중 현황조사를 완료한 852,124명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하였음. 독거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조사임.

9)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2008.3.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 거주지역과 성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노인이 33.4%, 중소도시가 39.0%, 군지역이 27.6%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72.4%를 차지하고 있음.
- 성별로는 남성노인이 18.8%, 여성노인이 81.2%로 여성노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별 여성노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도시 76.9%, 중소도시 81%, 군지역 85.3%로 군지역의 여성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지역별 독거노인의 분포 • •

(단위: %, 명)

구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남	18.8	23.1	19.0	14.7
여	81.2	76.9	81.0	85.3
계	852,124 (100%)	284,567 (33.4%)	332,588 (39.0%)	234,969 (27.6%)

2. 연령

- 독거노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70~74세 노인이 29.1%로 가장 많고, 75~79세 25.6%, 65~69세 20.5%, 80~84세 16.1%, 85세 이상이 8.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75.23세임.
- 대도시 노인의 평균 연령은 74.27세, 중소도시는 75.40세, 군 지역은 75.87세로 군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이 더 많았으며,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의 비율 역시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성별로는 남성노인의 평균 연령은 74.03세인 반면 여성노인은 75.47세이었으며, 80세 이상 고령노인의 비율은 남성노인의 경우 19.8%인 반면 여성노인은 25.7%로서 여성노인의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 지역별 독거노인의 연령 분포 • •

(단위: %)

구 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65 ~ 69세	20.5	26.0	19.4	16.9
70 ~ 74세	29.1	29.9	29.4	28.1
75 ~ 79세	25.6	24.0	25.6	27.1
80 ~ 84세	16.1	13.5	16.4	17.9
85세 이상	8.8	6.7	9.2	10.1
계 (명)	100.0 (852,124)	100.0 (284,567)	100.0 (332,588)	100.0 (234,969)

2) 가족관계

1. 생존 자녀 수

- 독거노인의 생존 자녀수를 보면 90% 이상의 독거노인이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독거노인 중에서 자녀가 한명도 없는 경우가 9.6%, 1~2명인 경우가 20.1%, 3~4명이 34.7% 그리고 5명 이상이 35.6%이었으며, 평균 생존 자녀수는 3.64명이었음.
-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 노인의 경우에는 평균 2.87명, 중소도시는 3.53명 그리고 군 지역은 4.33명으로 군 지역 거주 노인이 더 많은 수의 자녀가 생존해 있으며, 5명 이상의 다자녀(多子女)를 둔 노인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 생존 자녀 수 ● ●

(단위: 명, %)

구 분		평균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계 (명)
전체		3.64	9.6	20.1	34.7	35.6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2.87	14.5	27.4	37.0	21.1	100.0 (284,567)
	중소도시	3.53	10.1	20.8	35.4	33.7	100.0 (332,588)
	군지역	4.33	5.0	13.3	31.5	50.2	100.0 (234,969)

2. 손자녀 수

□ 독거노인 중에서 손자녀가 없는 노인이 21.2%, 1~3명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가 22.3%, 4~6명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가 26.0%, 7명 이상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가 30.6%로, 독거노인의 79% 정도는 최소 1명 이상의 손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독거노인의 평균 손자녀 수는 4.83명이었으며, 대도시 거주 독거노인은 평균 3.71명, 중소도시는 4.67명, 군 지역은 5.78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명 이상의 손자녀를 둔 비율도 군 지역 독거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 ● 손자녀 수 ● ●

(단위: 명, %)

구 분		평균	없음	1~3명	4~6명	7명 이상	계 (명)
전체		4.83	21.2	22.3	26.0	30.6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3.71	28.5	24.4	24.6	22.4	100.0 (284,567)
	중소도시	4.67	21.6	22.9	26.3	29.2	100.0

구 분		평균	없음	1~3명	4~6명	7명 이상	계 (명)
							(332,588)
	군지역	5.78	14.5	19.7	26.7	39.1	100.0 (234,969)

3. 형제·자매 수

□ 독거노인의 63% 정도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가 없는 독거노인이 37.3%, 1~2명의 생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29.1%, 3~4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19.1%, 그리고 5명 이상의 생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14.5%이었으며, 평균 1.93명의 생존 형제·자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 노인의 경우 평균 1.91명의 생존 형제·자매가 있으며, 중소도시는 1.95명, 군 지역은 1.93명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도시 거주 노인의 생존 형제·자매수가 더 많았음.

• • 형제·자매 수 • •

(단위: 명, %)

구 분		평균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계 (명)
전체		1.93	37.3	29.1	19.1	14.5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1.91	37.8	28.2	18.0	16.0	100.0 (284,567)
	중소도시	1.95	36.6	30.1	19.2	14.1	100.0 (332,588)
	군지역	1.93	37.9	28.7	19.6	13.8	100.0 (234,969)

3) 주거실태

1. 주택위치

□ 독거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위치는 안전 확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판

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됨.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이웃과 떨어져 위치한 경우가 27.2%, 이웃과 인접한 경우가 72.8%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군 지역보다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주택 위치가 이웃과 떨어져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도시지역 주민간의 사회적 교류가 낮은데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성노인의 경우 이웃과 떨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34.0%인 반면 여성노인은 25.6%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년기에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이웃과의 사회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경향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 주택위치 • •

(단위: %)

구 분		이웃과 떨어져	이웃과 인접함	계 (명)
전체		27.2	72.8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31.8	68.2	100.0 (284,567)
	중소도시	31.9	68.1	100.0 (332,588)
	군지역	17.4	82.6	100.0 (234,969)
성	남	34.0	66.0	100.0 (160,199)
	여	25.6	74.4	100.0 (691,925)

2. 주거환경

- 독거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환경을 생활관리사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한 결과, 주거환경이 불량하다는 경우가 15.8%, 보통이라고 한 경우가 40.8% 그리고 양호하다고 한 경우가 43.4%임.

- 지역별로 주거환경이 불량하다고 평가된 비율을 살펴보면, 대도시는 13% 정도, 중소도시는 16% 정도, 군 지역은 17% 정도로 나타나, 군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음. 성별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주택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주거환경 • •

(단위: %)

구 분		불량	보통	양호	계 (명)
전체		15.8	40.8	43.4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12.8	38.3	48.9	100.0 (284,567)
	중소도시	16.3	36.8	46.9	100.0 (332,588)
	군지역	17.3	47.9	34.8	100.0 (234,969)
성	남	18.2	38.8	43.0	100.0 (160,199)
	여	15.2	41.2	43.6	100.0 (691,925)

3. 주택설비의 개조 필요도

- 냉·난방설비를 개조 또는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52.3%로 나타나 주택설비 개조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화장실과 욕실의 개조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17.6%, 도배와 장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11.0%, 부엌설비를 개조 또는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6.3%이었으며, 나머지 6개 주택설비나 시설을 개조 또는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각각 4% 미만으로 주택개조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 주택설비별 개조 필요도 • •

(단위: 명, %)

주택 시설·설비	빈도	백분율*
냉·난방설비	446,085	52.3
전기설비	34,457	4.0
도배·장판	94,060	11.0
수도설비	19,557	2.3
화장실·욕실	149,937	17.6
부엌설비	54,013	6.3
가구	30,732	3.6
습도	32,595	3.8
채광	27,007	3.2
통풍	20,488	2.4

* 주택설비 각각의 개조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중복 응답한 비율

□ 주택시설이나 설비 10개 항목 중에서 개조 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수를 살펴보면, 주택설비나 시설의 수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55.4%이었으며, 1~2개 시설이나 설비를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23.7% 그리고 3가지 이상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20.9%로서 독거노인은 평균 1.46개의 주택시설이나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의 순으로 주택시설이나 설비의 개조 필요도가 낮았으며, 성별로는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이 주택개조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 주택개조 필요 항목 수 • •

(단위: 개, %)

구 분		평균	없음	1~2개	3개 이상	계 (명)
전체		1.46	55.4	23.7	20.9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1.08	68.2	15.2	16.6	100.0 (284,567)
	중소도시	1.52	55.8	22.4	21.8	100.0 (332,588)
	군지역	1.62	46.0	31.1	23.0	100.0 (234,969)
성	남	1.62	56.4	20.0	23.6	100.0 (160,199)
	여	1.41	55.2	24.5	20.3	100.0 (691,925)

4) 경제생활 실태

1. 경제활동 참여

- 독거노인 중에서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비율 즉, 경제활동 참여율은 16.0%로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32.2%(통계청, 200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군지역 거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19.8%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거주 노인이 12.8%로 가장 낮음. 성별로는 남성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7%, 여성노인이 15.0%로서 남성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별로는 65~69세 노인은 26.4%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율은 감소하여 85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5.1%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경제활동 참여 여부 ● ●

(단위: %)

구 분		경제활동 참여	경제활동 참여 없음	계 (명)
전체		16.0	84.0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12.8	87.2	100.0 (284,567)
	중소도시	14.9	85.1	100.0 (332,588)
	군지역	19.8	80.2	100.0 (234,969)
성	남	20.7	79.3	100.0 (160,199)
	여	15.0	85.0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26.4	73.6	100.0 (174,685)
	70 ~ 74세	19.5	80.5	100.0 (247,968)
	75 ~ 79세	13.0	87.0	100.0 (218,144)
	80 ~ 84세	7.7	92.3	100.0 (137,192)
	85세 이상	5.1	94.9	100.0 (74,135)

2. 수입원

-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근로 및 사업 소득, 가족보조금, 각종 수당 및 급여 등 6개 수입원 각각으로부터 수입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나 용돈을 지원받는 노인이 27.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는 노인이 19.7%,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노인이 15.2%, 경로연금 즉,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10.8%, 개인연금이나 저축이 있는 노인이 6.1%, 단체나 개인의 후원금을 받는 노인이 0.4%로 나타났다.

● ● 주요 수입원 ● ●

(단위: 명, %)

수입원	빈도	백분율*
근로·사업소득	129,448	15.2
가족보조금	235,615	27.7
경로연금(현 기초노령연금)	92,197	10.8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67,631	19.7
단체·개인 후원금	3,725	0.4
연금·저축	52,152	6.1

* 각각의 수입원으로부터 수입이 있는 비율

- 독거노인 중에서 수입원이 전혀 없는 노인은 2.0%이며, 1개의 수입원이 있는 노인이 28.3%, 2개의 수입원이 있는 노인이 52.6%, 3개 이상의 수입원이 있는 노인이 17.1%로서, 평균 1.46개의 수입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대도시, 군 지역, 중소도시의 순으로 독거노인의 평균 수입원 수가 많았으며, 성별로는 평균 수입원수는 유사하지만 여성노인 중에서 2개 이상의 수입원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남성노인보다 높았음.
-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원의 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85세 이상에서는 3개 이상의 수입원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20.3%에 이르고 있음.

● ● 주요 수입원 수 ● ●

(단위: 개, %)

구 분		평균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계 (명)
전 체		1.46	2.0	28.3	52.6	17.1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1.88	1.3	25.8	57.9	15.0	100.0 (284,567)
	중소도시	1.85	2.4	28.7	52.0	17.0	100.0 (332,588)
	군지역	1.87	1.9	30.2	49.4	18.6	100.0 (234,969)
성**	남	1.87	2.2	28.2	51.7	17.8	100.0 (160,199)
	여	1.87	1.7	28.2	53.0	17.1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1.82	2.8	29.9	51.3	16.0	100.0 (174,685)
	70 ~ 74세	1.85	1.8	28.9	53.1	16.3	100.0 (247,968)
	75 ~ 79세	1.88	1.7	27.8	53.0	17.4	100.0 (218,144)
	80 ~ 84세	1.89	1.6	27.2	53.4	17.9	100.0 (137,192)
	85세 이상	1.92	1.9	26.1	51.7	20.3	100.0 (74,135)

3. 월평균 소득액

- 독거노인의 응답에 근거하여 월평균 소득액을 조사한 결과, 월 소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26.6%, 10~19만원이 13.8%, 20~29만원이 20.6%, 30~39만원이 22.5%, 40만 원 이상이 16.6%로서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은 26만 6천 원 정도임.
- 이러한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액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월평균 소득액 48만 6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에 비해 약 22만원 정도가 적은 액수임.
-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액이 가장 많아 30만 1천원, 중소도시 거주 노인 24만원, 군지역 거주 노인 19만원 이었으며, 4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인의 비율 역시 대도시 거주 노인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성별로는 남성노인의 월평균 소득액은 30만 8천 원 정도인 반면 여성노인은 22만 6천 원 정도이며, 여성노인 중에서는 월 소득액이 10만원 미만인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남성노인은 40만 원 이상인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는 65~69세 노인의 월평균 소득액은 28만 8천 원 정도이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월 소득액이 감소하여 85세 이상의 월평균 소득액은 19만 9천 원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액이 감소하고 있음.

• • 월 평균 소득액 • •

(단위: 만원, %)

구 분		평균	10만원 미만	10~19만원	20~29만원	30~39만원	40만원 이상	계 (명)
전체		26.6	26.6	13.8	20.6	22.5	16.6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30.1	20.0	8.7	17.6	29.2	24.5	100.0 (284,567)
	중소도시	24.0	29.4	11.7	20.9	22.0	16.1	100.0 (332,588)
	군지역	19.0	29.5	20.4	21.5	17.4	11.2	100.0 (234,969)
성	남	30.8	23.7	11.6	17.8	21.7	25.3	100.0 (160,199)
	여	22.6	27.2	14.3	21.2	22.6	14.8	100.0 (691,925)
연령	65~69세	28.8	21.8	12.2	19.3	22.3	24.4	100.0 (174,685)
	70~74세	24.9	25.1	13.5	20.6	22.7	18.1	100.0 (247,968)
	75~79세	22.6	28.0	14.5	21.3	22.1	14.1	100.0 (218,144)
	80~84세	21.1	30.1	14.8	20.9	22.6	11.7	100.0 (137,192)
	85세 이상	19.9	31.6	14.2	20.8	23.2	10.2	100.0 (74,135)

4. 용돈액수

□ 독거노인의 월평균 용돈액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돈액수가 월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1.3%, 10~19만 원인 경우가 18.8%, 20만 원 이상인 경우가 29.8%이며, 월평균 용돈액수는 12만 1천 원 정도임.

□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의 순으로 월평균 용돈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월평균 용돈액수는 13만 2천원, 여성노인은 11만 8천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노인의 용돈액수가 더 많았음.

□ 연령별로는 65~69세 노인의 경우 월평균 용돈액수가 12만 7천원 이었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용돈액수는 줄어들어 85세 이상에서는 10만 3천원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용돈액수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 월평균 용돈액수 ● ●

(단위: 만원, %)

구 분		평균	10만원 미만	10~19만원	20만원 이상	계 (명)
전 체		12.1	51.3	18.8	29.8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12.5	59.6	10.3	30.1	100.0 (284,567)
	중소도시	12.4	51.1	17.5	31.3	100.0 (332,588)
	군지역	10.9	49.4	24.0	26.7	100.0 (234,969)
성	남	13.2	53.6	15.5	30.9	100.0 (160,199)
	여	11.8	50.9	19.5	29.6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12.7	53.2	16.1	30.7	100.0 (174,685)
	70 ~ 74세	12.7	49.9	18.4	31.7	100.0 (247,968)
	75 ~ 79세	12.1	50.2	19.5	30.3	100.0 (218,144)

구 분		평균	10만원 미만	10~19만원	20만원 이상	계 (명)
	80 ~ 84세	11.1	51.5	20.8	27.7	100.0 (137,192)
	85세 이상	10.3	54.7	20.2	25.1	100.0 (74,135)

5) 건강생활 실태

1. 영양관리

□ 독거노인의 영양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시점 직전 주간의 결식횟수를 조사한 결과, 독거노인 중의 79.0%는 매끼니 결식하지 않고 영양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1-2회 정도 결식하는 노인은 3.4%, 주 3-4회 결식한 노인은 4.7%, 주 5회 이상 결식한 노인은 12.5%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거주 노인의 결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도시, 군지역의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결식하는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식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아져 85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26.3%가 주 1회 이상 결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 지난 주 결식 횟수 ● ●

(단위: %)

구 분		없음	주1~2회	주3~4회	주5회 이상	계 (명)
전체		79.0	3.4	4.7	12.5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80.6	2.8	3.4	13.2	100.0 (284,567)
	중소도시	74.7	4.4	5.3	15.5	100.0 (332,588)
	군지역	83.1	3.4	5.0	8.6	100.0 (234,969)
성	남	77.3	3.9	4.4	14.4	100.0

구 분		없음	주1~2회	주3~4회	주5회 이상	계 (명)
						(160,199)
	여	79.4	3.7	4.8	12.1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81.9	3.4	3.9	10.8	100.0 (174,685)
	70 ~ 74세	80.8	3.6	4.5	11.1	100.0 (247,968)
	75 ~ 79세	78.9	3.7	4.8	12.6	100.0 (218,144)
	80 ~ 84세	75.7	4.2	5.5	14.6	100.0 (137,192)
	85세 이상	73.7	4.2	5.7	16.5	100.0 (74,135)

2. 일상생활 동작능력

□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옷입기, 세수, 목욕, 화장실 이용, 청소, 빨래, 조리, 식사, 앉고 눕기, 실내보행, 외출, 대변조절, 소변조절, 대중교통이용, 시장보기, 전화, 관공서 이용, 은행 이용이라는 18개 항목 중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실행이 가능한 일상생활 동작능력을 조사하였음.

□ 독거노인 중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모든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힘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인이 75.4%이었으며, 1~2개 일상생활 동작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9.2%, 3~4개 일상생활 동작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6.5% 그리고 5개 이상의 일상생활 동작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8.9%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의 순으로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65~69세 노인 중에서는 14.6%가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85세 이상에서는 44.6%가 1가지 이상의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수 • •

(단위: %)

구 분		없음	1~2개	3~4개	5개 이상	계 (명)
전체		75.4	9.2	6.5	8.9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83.5	6.7	4.3	5.4	100.0 (284,567)
	중소도시	74.0	8.7	6.9	10.4	100.0 (332,588)
	군지역	70.5	11.8	7.7	10.0	100.0 (234,969)
성	남	79.2	7.9	5.2	7.7	100.0 (160,199)
	여	74.7	9.5	6.7	9.1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85.4	6.1	3.6	4.9	100.0 (174,685)
	70 ~ 74세	81.1	8.0	4.8	6.1	100.0 (247,968)
	75 ~ 79세	74.9	10.0	6.7	8.4	100.0 (218,144)
	80 ~ 84세	65.9	12.0	9.4	12.8	100.0 (137,192)
	85세 이상	55.4	12.3	11.7	20.6	100.0 (74,135)

6) 사회적 관계

1. 가족과의 연락 및 접촉

□ 독거노인이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들과 어느 정도 자주 연락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족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17.4%이며, 가끔 연락을 하는 경우가 34.9%, 자주 연락을 하는 경우가 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군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 노인들에 비하여 자녀와 상대적으로 연락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이 가족과 연락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70~74세 노인이 가족과 연락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85세 이상 노인의 가족과의 연락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가족과의 연락 빈도 ● ●

(단위: %)

구 분		거의 안함	가끔 연락	자주 연락	계 (명)
전체		17.4	34.9	47.7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21.1	32.2	46.7	100.0 (284,567)
	중소도시	19.9	34.7	45.5	100.0 (332,588)
	군지역	11.3	37.6	51.1	100.0 (234,969)
성	남	25.0	34.0	41.0	100.0 (160,199)
	여	15.7	35.1	49.2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18.5	31.4	50.0	100.0 (174,685)
	70 ~ 74세	16.0	34.2	49.8	100.0 (247,968)
	75 ~ 79세	16.3	35.9	47.7	100.0 (218,144)
	80 ~ 84세	18.2	37.8	44.0	100.0 (137,192)
	85세 이상	20.5	36.3	43.2	100.0 (74,135)

□ 독거노인과 가족과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가족과 거의 만나지 않는 노인이 21.7%, 가끔 만나는 노인이 43.4%, 자주 만나는 노인이 34.9%로 나타나, 가족

과의 연락빈도보다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 지역별로는 군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녀와 접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이 자녀와 더 자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관한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70~74세 노인의 가족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85세 이상 노인의 가족접촉빈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가족과의 접촉 빈도 • •

(단위: %)

구 분		거의 안만남	가끔 만남	자주 만남	계 (명)
전체		21.7	43.4	34.9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25.4	36.8	37.8	100.0 (284,567)
	중소도시	24.0	41.5	34.5	100.0 (332,588)
	군지역	16.3	51.3	32.4	100.0 (234,969)
성**	남	29.4	39.1	31.5	100.0 (160,199)
	여	20.0	44.4	35.6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22.9	39.8	37.3	100.0 (174,685)
	70 ~ 74세	20.6	43.4	36.0	100.0 (247,968)
	75 ~ 79세	20.9	44.9	34.2	100.0 (218,144)
	80 ~ 84세	22.4	45.4	32.2	100.0 (137,192)
	85세 이상	23.5	43.2	33.0	100.0 (74,135)

2. 친구와의 연락 및 접촉

□ 독거노인 중에서 친구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노인이 34.4%, 가끔 연락하는 노인이 28.9% 그리고 자주 연락을 하는 노인이 36.7%로 나타나, 가족과의 연락빈도보다 상대적으로 연락하는 빈도가 적었음.

□ 지역별로는 군 지역 거주 노인들이 친구와 연락하는 빈도가 가장 많고, 중소도시 거주 노인의 친구 연락빈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들이 친구와 자주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친구와 자주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친구와의 연락 빈도 ● ●

(단위: %)

구 분		거의 안함	가끔 연락	자주 연락	계 (명)
전체		34.4	28.9	36.7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36.0	30.7	33.3	100.0 (284,567)
	중소도시	40.5	25.2	34.3	100.0 (332,588)
	군지역	26.1	31.8	42.2	100.0 (234,969)
성**	남	36.0	30.6	33.4	100.0 (160,199)
	여	34.0	28.5	37.5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29.6	30.7	39.7	100.0 (174,685)
	70 ~ 74세	30.5	29.6	39.9	100.0 (247,968)
	75 ~ 79세	33.6	28.8	37.6	100.0 (218,144)
	80 ~ 84세	40.0	27.8	32.2	100.0 (148,075)
	85세 이상	48.7	25.4	25.9	100.0 (74,135)

- 독거노인 중에서 친구와 거의 만나지 않는 노인이 33.6%, 가끔 만나는 노인이 29.1% 그리고 자주 연락을 하는 노인이 37.3%로 나타나, 가족과의 접촉빈도보다 상대적으로 연락하는 빈도가 적었음.
- 지역별로는 군 지역 거주 노인의 친구 접촉빈도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친구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구와의 접촉빈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8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친구와 거의 만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이 46.2%에 이르고 있었음.

● ● 친구와의 접촉 빈도 ● ●

(단위: %)

구 분		거의 안만남	가끔 만남	자주 만남	계 (명)
전체		33.6	29.1	37.3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36.1	31.2	32.7	100.0 (284,567)
	중소도시	39.4	26.5	34.1	100.0 (332,588)
	군지역	25.0	30.4	44.6	100.0 (234,969)
성**	남	35.6	31.1	33.3	100.0 (160,199)
	여	33.1	28.6	38.3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29.6	30.5	39.9	100.0 (174,685)
	70 ~ 74세	30.2	29.5	40.3	100.0 (247,968)
	75 ~ 79세	32.8	28.9	38.3	100.0 (218,144)
	80 ~ 84세	38.3	28.2	33.4	100.0 (137,192)
	85세 이상	46.2	26.8	27.0	100.0 (74,135)

3. 이웃과의 연락 및 접촉

- 독거노인과 이웃과의 연락빈도를 살펴보면, 이웃의 주민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25.6%이었으며, 가끔 연락을 하는 경우가 29.1%, 자주 연락을 하는 경우가 45.3%로 나타나, 가족이나 친구와의 연락빈도보다 오히려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군지역의 경우 이웃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노인이 13.3%이며 자주 연락을 하는 경우가 56.6%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성별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이웃과의 연락 빈도 • •

(단위: %)

구 분		거의 안함	가끔 연락	자주 연락	계 (명)
전체		25.6	29.1	45.3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31.9	31.1	36.9	100.0 (284,567)
	중소도시	31.2	26.8	42.0	100.0 (332,588)
	군지역	13.3	30.1	56.6	100.0 (234,969)
성**	남	33.4	29.9	36.6	100.0 (160,199)
	여	23.7	28.9	47.4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24.2	29.3	46.6	100.0 (174,685)
	70 ~ 74세	23.2	28.6	48.2	100.0 (247,968)
	75 ~ 79세	24.3	28.9	46.8	100.0 (218,144)
	80 ~ 84세	28.3	29.8	41.9	100.0 (137,192)
	85세 이상	34.6	29.4	36.1	100.0 (74,135)

- 독거노인과 이웃과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이웃의 주민들과 거의 만나지 않는 경우가 23.4%이었으며, 가끔 만나는 경우가 28.4%, 자주 만나는 경우가 48.2%로 나타나,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빈도보다 오히려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군 지역 거주 독거노인 중에서 이웃과 거의 만나지 않는 노인은 9.9%인 반면 자주 만나는 노인은 61.4%로서 다른 지역 거주 노인들에 비해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성별로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감소하여 85세 이상에서는 29.5%의 노인이 이웃과 거의 만나지 않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이웃과의 접촉 빈도 • •

(단위: %)

구 분		거의 안만남	가끔 만남	자주 만남	계 (명)
전체		23.4	28.4	48.2	100.0 (852,124)
지역*	대도시	32.4	30.1	37.5	100.0 (284,567)
	중소도시	28.4	27.1	44.5	100.0 (332,588)
	군지역	9.9	28.6	61.4	100.0 (234,969)
성**	남	32.1	29.7	38.2	100.0 (160,199)
	여	21.3	28.2	50.5	100.0 (691,925)
연령***	65 ~ 69세	23.2	27.8	49.0	100.0 (174,685)
	70 ~ 74세	21.7	27.3	51.0	100.0 (247,968)
	75 ~ 79세	22.0	28.2	49.8	100.0 (218,144)
	80 ~ 84세	24.7	30.1	45.2	100.0 (137,192)
	85세 이상	29.5	31.3	39.3	100.0 (74,135)

2. 조손가족 현황

가. 조손가족 현황

- IMF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해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가족유형의 하나로 조손가정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음. 1995년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세대가구 가운데 조손가구를 분리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손가정에 대한 실체와 그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됨.¹⁰⁾
- 2005년 인구가구총조사 시 동거자 통계를 통해 집계한 우리나라의 조손가구는 58,058가구로 전체 가구의 0.36%를 차지하고 있고, 1995년 35,194가구, 2000년 45,224가구에 이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10년 동안 22,907가구가 증가하여 6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 전국 조손가족 현황 ●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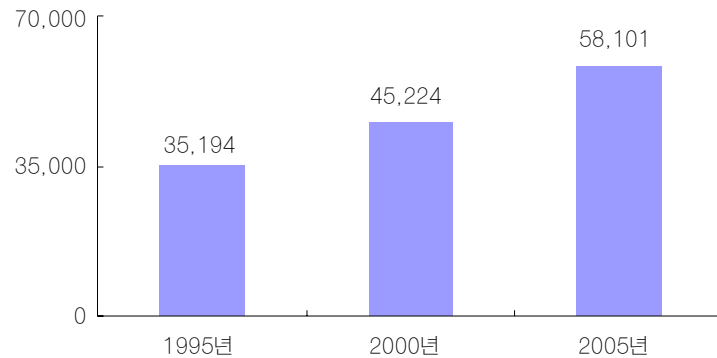
연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조손가정	35,194	45,224	48,168	50,638	53,073	55,535	58,058	60,057	62,266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가구총조사

10)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외, 최근 가족해체 실태와 복지대책, 2000.

• • 조손가족 수 증가추세 • •

(단위: 가구)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가구조조사

- 지난 1997년 IMF위기 이후 급속히 늘어난 조손가족은 대부분 경제적 약자이거나 소외계층을 형성하고 있음. 조손가정은 노인과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형태라는 점에서 노인문제와 아동문제가 복합되어 다양한 가족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점차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정은 일단 사회문제적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조손가족이 기본적인 가족주의적 정서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가족 해체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또한 부정하기 어려움.¹¹⁾
- 따라서 다양한 가족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조손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에 대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아동에게는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함.

11) 여성가족부,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2007.12.

나. 조손가정 생활실태¹²⁾

□ 여성가족부에서는 2007년 조손가족의 지원방안연구를 위해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조부모가 동거하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조손가족 60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이번 장의 내용은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1. 조손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600의 조손가구 가운데 조부가 응답한 경우가 102명이며, 조모가 응답한 경우는 498명으로 조모의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주로 손자녀 양육이 조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실제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연령별 분포는 70세 이상이 47.6%로 가장 많았고, 60대의 경우가 259명으로 43.2%였으며, 50대 이하 응답자는 55명으로 전체의 9.2%에 불과함.

□ 조부모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국졸이하의 학력이 477명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할 정도로 평균교육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중졸과 고졸이 각각 13.8%와 5.2%, 대졸이상인 경우는 1.5%에 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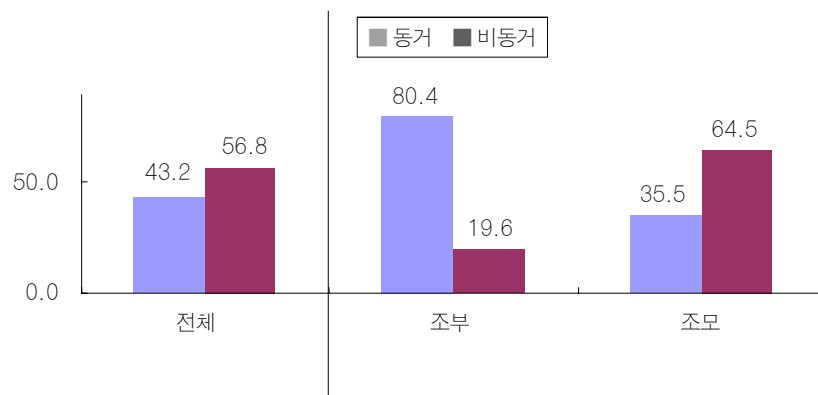
□ 조사대상 조부모 중 현재 배우자와 동거중인 경우는 259명 43.2%였고 사별, 이혼 및 별거 등으로 6개월 이상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341명으로 전체의 56.8%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역시 유배우자가 아닌 비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음.

12) 여성가족부,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2007.12.

- 이는 응답노인의 절반가량이 70세 이상인 고연령층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생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인구학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조부모를 성별로 재구분해 보면, 남성 응답자인 조부 102명 가운데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80.4%(82명)인 반면, 여성 응답자인 조모의 경우에는 498명 가운데 35.5%(177명)만이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음.
- 배우자도 없이 혼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비율은 무려 64.5%이나 되었고 혼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는 1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 조부모의 배우자 유무 • •

(n=600, 단위: %)



-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경우 자립적인 생계유지조차 자신의 주요한 과업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성인자녀에게 여의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꺼이 대안적 부모역할까지 도맡아야 하는 이중적 부담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손가족이 전체의 50.3%에 달하고, 대도시 28.2%, 군 지역 21.5%가 거주하고 있음.

□ 조손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50~7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1.0%), 다음이 30~50만원(24.3%), 70~100만원 미만(21.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해 150만 원 이상의 가구는 5.3%에 불과함.

□ 30만원 미만인 가구 역시 4.8%로 나타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조손가족의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82%에 달하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 •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단위: 명, %)

		조손가족 수	구성비
전 체		600	(100.0)
성	조부	102	(17.0)
	조모	498	(83.0)
연령	60세 미만	55	(9.2)
	60대	259	(43.2)
	70세 이상	286	(47.6)
학력	국졸	477	(79.5)
	중졸이하	83	(13.8)
	고졸	31	(5.2)
	대졸이상	9	(1.5)
배우자 유무			
	동거 유배우자	259	(43.2)
	동거 무배우자	341	(56.8)
거주지 규모			
	대도시	169	(28.2)
	중소도시	302	(50.3)
	군	129	(21.5)
월평균 가구소득			
	30만원 미만	29	(4.8)
	30~50만원 미만	149	(24.8)

	조손가족 수	구성비
전 체	600	(100.0)
50~70만원 미만	186	(31.0)
70~100만원 미만	128	(21.3)
100~150만원 미만	77	(12.8)
150만원 이상	31	(5.3)
양육 손자녀 수		
1명 양육 가구	356	59.3
2명 양육 가구	208	34.7
3명 이상 양육 가구	36	6.0

나. 조손가족 손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600가구에서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손자녀 수는 모두 880명으로 한 가구당 평균 양육 손자녀 수는 1.5명임. 손자녀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세 이하의 손자녀가 가장 적어 전체 손자녀 가운데 11.8%에 불과하며, 7~12세가 40.1%, 13~18세가 48.1% 임.
- 이를 다시 손자녀의 학령으로 전환하여 비교해보면, 미취학 아동인 경우가 12.3%, 초등학생인 경우가 39.8%, 중학생이 26.9%, 고등학생은 20.0%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조부모가 양육하는 손자녀 가운데 친손자녀의 비율이 80.3%로 압도적이었고, 외손자녀인 경우는 19.7%에 불과함. 다양한 사유로 결혼관계가 해체되었거나 부모노릇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녀양육을 책임진 부 혹은 남성 한부모들은 생계별이나 혹은 적절한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친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비율 또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한 기간은 평균 7.4년이었고, 양육기간이 6년 이하인 가구는 46.9%, 7~12년인 가구는 38.9%, 13~18년인 가구는 14.2%임.

• • 조손가족 양육 손자녀 특성 • •

(단위: 명, %)

		손자녀 수	구성비
전 체		880	(100.0)
손자녀 성	손자	484	(55.0)
	손녀	396	(45.0)
손자녀 연령	6세 이하	104	(11.8)
	7~12세	353	(40.1)
	13~18세	423	(48.1)
손자녀 학령	미취학	108	(12.3)
	초등학생	350	(39.8)
	초졸 및 중퇴	1	(0.1)
	중학생	237	(26.9)
	중졸 및 중퇴	2	(0.2)
	고등학생	176	(20.0)
	고졸 및 중퇴	6	(0.7)
손자녀 친외손	친손	707	(80.3)
	외손	173	(19.7)
양육기간	6년 이하	413	(46.9)
	7~12년	342	(38.9)
	13~18년	125	(14.2)

다. 손자녀 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친부모 모두 행방불명인 경우가 18.5%로 가장 많았고, 각자 이혼하고 독신으로 지내고 있는 경우가 13.7%였으며, 친모가 행방불명이며 친부는 이혼 후 독신으로 지내는 경우가 12.2%임. 부모가 모두 행방불명인 경우가 18.5%,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가 3.7%로 집계되어, 고아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손자녀들은 전체의 22.2%임.

• • 손자녀 친부모 현황 • •

(단위: 명, %)

		친모 현황						합계
		이혼 후 독신	재혼	부부 별거	행방 불명	사망	기타	
친부 현황	이혼 후 독신	82 (13.7)	31 (5.2)	0 (0.0)	73 (12.2)	5 (0.8)	6 (1.0)	197 (32.8)
	재혼	4 (0.7)	6 (1.0)	0 (0.0)	9 (1.5)	2 (0.3)	1 (0.2)	22 (3.7)
	부부 별거	2 (0.3)	0 (0.0)	5 (0.8)	6 (1.0)	0 (0.0)	1 (0.2)	14 (2.3)
	행방불명	25 (4.2)	27 (4.5)	5 (0.8)	111 (18.5)	11 (1.8)	5 (0.8)	184 (30.7)
	사망	4 (0.7)	32 (5.3)	0 (0.0)	47 (7.8)	22 (3.7)	9 (1.5)	114 (19.0)
	기타	2 (0.3)	2 (0.3)	0 (0.0)	10 (1.7)	9 (1.5)	46 (7.7)	69 (11.5)
합 계		119 (19.8)	98 (16.3)	10 (1.7)	256 (42.7)	49 (8.2)	68 (11.3)	600 (100.0)

□ 손자녀 부모의 행방불명이나 사망, 재혼 등의 비율을 모두 합한다면 전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손자녀들의 약 60% 이상은 적어도 양친부모와 동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대면적 접촉도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조손가족이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의 일시적인 부재를 대체하는 과도기적 가족으로 볼 수 없는 주요한 논거로 볼 수 있음. 결국, 우리나라 조손가족의 주요 형성 요인은 친모의 양육 불가능 상황이 근본적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이어지는 친부의 양육포기이거나 양육불능이 조손가족 형성의 실질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

□ 조손가족 손자녀 친부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아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30대가 28.7%임. 고졸 학력인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고, 중졸인 경우가

26.5%, 대졸인 경우는 14.7%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40대 고졸이하의 학력 집단이 높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친부의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아 22.5%였고, 생산기술직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17.3%와 14.8%로 나타났음.

• • 친부 인구사회학적 특성 • •

(단위: 명, %)

		조손가족 수	구성비
전 체		600	(100.0)
친부 연령	20대 이하	14	(2.3)
	30대	172	(28.7)
	40대	350	(58.3)
	50대 이상	47	(7.8)
	모름 무응답	17	(2.8)
친부 학력	국졸 이하	46	(7.7)
	중졸	159	(26.5)
	고졸	285	(47.5)
	대졸 이상	88	(14.7)
	모름 무응답	22	(3.7)
친부 직업	전문/경영/사무직	57	(9.5)
	판매 서비스직	89	(14.8)
	생산/기술직	104	(17.3)
	농/임/어업	34	(5.7)
	용역서비스직	52	(8.7)
	단순 노무직	135	(22.5)
	기타	10	(1.7)
	모름/무응답	119	(19.8)

- 친모의 경우에는 30대가 가장 많아 49.0%로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 40대는 41.0%로 나타남. 친모의 학력은 고졸의 학력집단의 비중이 가장 높은 49.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졸 29.3%, 대졸 8.8%의 순임. 직업은 주부인 경우가 53.5%로 가장 많았고,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12.0%임.

● ● 친모 인구사회학적 특성 ● ●

(단위: 명, %)

	조손가족 수	구성비
전 체	600	(100.0)
친모 연령		
20대 이하	31	(5.2)
30대	294	(49.0)
40대	246	(41.0)
50대 이상	15	(2.5)
모름 무응답	14	(2.3)
친모 학력		
국졸 이하	46	(7.7)
중졸	176	(29.3)
고졸	297	(49.5)
대졸 이상	53	(8.8)
모름 무응답	28	(4.7)
친모 직업		
전문/경영/사무직	27	(4.5)
판매 서비스직	72	(12.0)
생산/기술직	26	(4.3)
농/임/어업	12	(2.0)
용역서비스직	7	(1.2)
단순 노무직	36	(6.0)
주부	321	(53.5)
모름/무응답	99	(16.5)

2.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실태

□ 손자녀의 양육 이유를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 및 재혼’에 의한 손자녀 양육이 전체의 45.0%를 차지하였고,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가 20.2%, ‘부모의 가출 및 실종’인 경우가 18.3%의 순임.

• • 가구 소득에 따른 손자녀 양육 이유 • •

(단위: 명, %)

	부모의 이혼 및 재혼	부모의 사망	부모의 가출 및 실종	부모의 실직 및 파산	미혼모	부모의 질병	부모의 수감	기타	합계
전 체	270 (45.0)	121 (20.2)	110 (18.3)	44 (7.3)	11 (1.8)	9 (1.5)	3 (0.5)	32 (5.3)	600 (100.0)
30만원미만	9 (31.0)	6 (20.7)	11 (37.9)	1 (3.4)	0 (0.0)	1 (3.4)	1 (3.4)	0 (0.0)	29 (100.0)
30~50만원 미만	62 (41.6)	37 (24.8)	34 (22.8)	10 (6.7)	4 (2.7)	2 (1.3)	0 (0.0)	0 (0.0)	149 (100.0)
50~70만원 미만	89 (47.8)	39 (21.0)	41 (22.0)	8 (4.3)	2 (1.1)	2 (1.1)	1 (0.5)	4 (2.2)	186 (100.0)
70~100만원 미만	65 (50.8)	21 (16.4)	18 (14.1)	15 (11.7)	0 (0.0)	2 (1.6)	1 (0.8)	6 (4.7)	128 (100.0)
100~150만원 미만	34 (44.2)	13 (16.9)	5 (6.5)	6 (7.8)	3 (3.9)	1 (1.3)	0 (0.0)	15 (19.5)	77 (100.0)
150만원 이상	11 (35.5)	5 (16.1)	1 (3.2)	4 (12.9)	2 (6.5)	1 (3.2)	0 (0.0)	7 (22.6)	31 (100.0)

-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혼 및 재혼율에 비추어 볼 때 부부의 이혼 혹은 재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양육 부담이 그들의 조부모에게 전가된다는 점은 이혼율과 재혼율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가족에서의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양육이 용이하지 않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
- 결국 자녀양육과 부양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에 봉착한 한부모들이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할 경우 쉽게 의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유대에 근거한 신뢰감을 토대로 자신의 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위탁할 가능성은 매우 높음.
-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 사유를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득이 3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부모의 가출 및 실종'으로 인해 손자

녀의 양육을 떠맡은 경우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조손가족의 월평균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조손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이혼 및 재혼’에 따른 손자녀 양육의 사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손가족의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3. 조손가족의 건강 및 장애

- 조부모 자신의 질병 유무에 대한 응답 결과 건강하다는 응답은 27.3%였고,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응답은 52.7%, 크고 작은 잔병이 많다는 응답은 20.0%로, 72.7%의 응답 조부모가 질병을 앓고 있었음.
- 따라서 조손가족이 손자녀 양육의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손가족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함.

• • 응답자의 질병 상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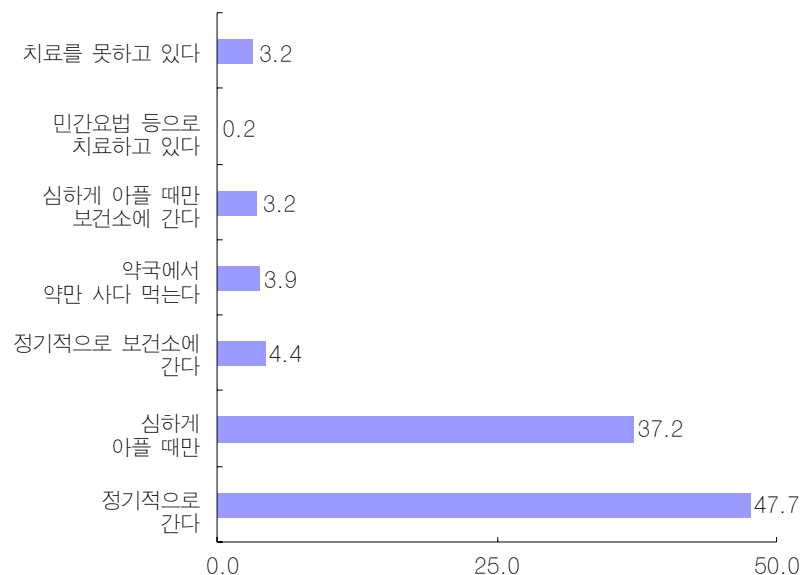
(단위: 명, %)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	크고 작은 잔병이 많다	건강한 편이다	합계
전 체	316(52.7)	120(20.0)	164(27.3)	600(100.0)
성				
조부	45.1	17.6	37.3	102(100.0)
조모	54.2	20.5	25.3	498(100.0)
연령대				
50대 이하	20(36.4)	9(16.4)	26(47.3)	55(100.0)
60대	133(51.4)	39(15.1)	87(33.6)	259(100.0)
70세 이상	163(57.0)	72(25.2)	51(17.8)	286(100.0)

- 만성 질환자와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있는 436명의 응답조부모 중 정기적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47.7%, 심하게 아플 때만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는 경우가 37.2%였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4.4%에 불과했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3.2%로 집계되었음.

• • 응답자의 치료 현황 • •

(n=32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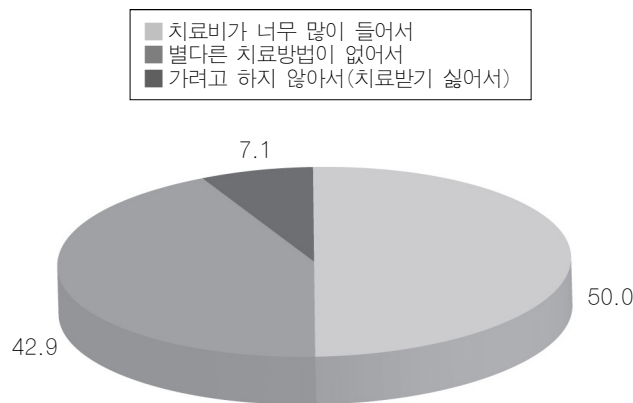


- 만성질환의 경우 정기적인 진단과 치료가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절반 정도만이 정기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뿐 나머지 절반의 경우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대부분의 노인 가족이 그렇듯이 조손가족의 경우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안정적으로 치료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음.
-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응답한 14명 중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진료를 포기한 경우는 7명으로 50%에 달했고, 42.9%는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있었음. 조손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조손가족에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가계의 부담이 되리라는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음.

• • 비치료 이유 • •

(n=14, 단위: %)



4. 조손가족의 가사와 가계운영

가. 가계수입 담당자

- 조손가족 10가구 중 6가구 정도(57.7%)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경제활동을 통해 가계수입을 책임지는 경우는 29.8%(본인: 16.5%, 배우자: 13.3%)이고, 기타 다른 친인척이나 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는 12.2%임.
- 대부분의 조부모가 경제활동 연령을 넘어 선 노년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연령별로 분석하면 50대 이하에서는 배우자(41.8%)나 본인(14.5%)이 직접 가계수입을 책임지는 경우가 56.3%로 절반이 넘는 반면,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경우는 36.4%에 불과하였고, 60대에서는 조부모가 직접 생계비를 담당하는 경우가 38.6%(본인: 21.2%, 배우자: 17.4%),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48.5%였다. 한편 70대 이상의 고령은 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70.3%로 압도적으로 많고, 조부모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는 16.8%(본인: 12.6%, 배우자: 4.2%)임.
- 조손가족의 생계비는 결국 조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나 공공기관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자활의 가능성 보다는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음.

• • 가계수입 담당자 • •

(단위: 명, %)

	정부나 공공기관	본인	배우자	기타	손자 손녀	자녀	합계
전 체	346(57.7)	99(16.5)	80(13.3)	73(12.2)	1(0.2)	1(0.2)	600(100.0)
연령대							
50대이하	20(36.4)	8(14.5)	23(41.8)	4(7.3)	0(0.0)	0(0.0)	55(100.0)
60대	125(48.3)	55(21.2)	45(17.4)	34(13.1)	0(0.0)	0(0.0)	259(100.0)
70세이상	201(70.3)	36(12.6)	12(4.2)	35(12.2)	1(0.3)	1(0.3)	286(100.0)

나. 가계소득 구조

- 600가구 중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는 465가구 77.5%로 가장 많았으나, 아직도 약 22.5%의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 물론 이들 중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평균 소

득이 7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더 큼.

- 소득액이 가장 큰 경우는 연금 및 이자, 임대료 등의 경우로 평균 64만 원 정도였으나 가구 수가 61가구 10.2%로 사례가 적음. 반면 근로소득은 평균 53만 원 정도였고, 정부지원금이 41만 원 정도, 자녀 및 친인척의 지원금이 34만 원 정도였으며, 사회단체의 지원금은 11만원임.

• • 가계소득 구조 • •

(단위: 명,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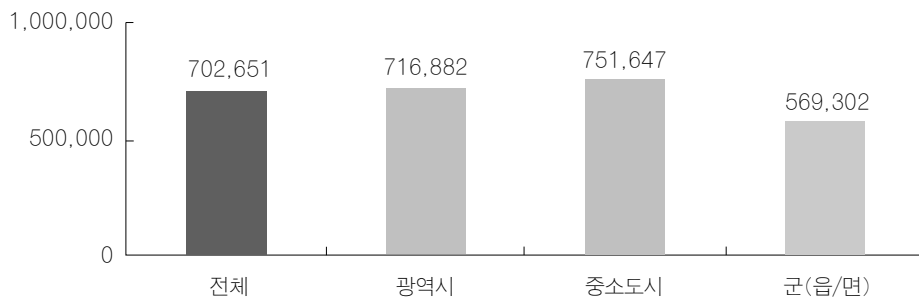
소득 종류	응답자 수	구성비	소득평균
합 계	600	(100.0)	702,651
정부지원금	465	(77.5)	411,366
자녀 지원금	215	(35.8)	338,605
근로소득	194	(32.3)	527,536
연금 및 재산소득	61	(10.2)	635,623
사회단체 지원금	43	(7.2)	112,930
기타소득	26	(4.3)	435,269

-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도 2/4분기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소득이 210만 원 선이고, 비근로가구의 경우에도 193만 원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조손가족에 지원하는 지원 금액 41만 원은 조손가족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금액수준임.

- 각종 지원금과 소득을 합한 가구의 월평균 총액은 평균 70만 원 정도였고,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72만 원과 75만 원 정도였으나, 군의 경우에는 57만 원에 불과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약 15~18만 원 정도였음.

• • 시군 간 월평균 소득 비교 • •

(n=600, 단위: 원)



□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가구 특히 비근로가구의 평균소득이 약 193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손가족의 평균 70만원 소득은 이들의 약 36% 정도의 수준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산정한 2007년 우리나라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20만 원, 2인가족의 경우가 73만 원이란 점에 비추어 보아도 현재 조손가족의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주인 조부모들이 고령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손자녀들은 청소년으로 자립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현실화될 필요가 대두되며, 특히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자활을 지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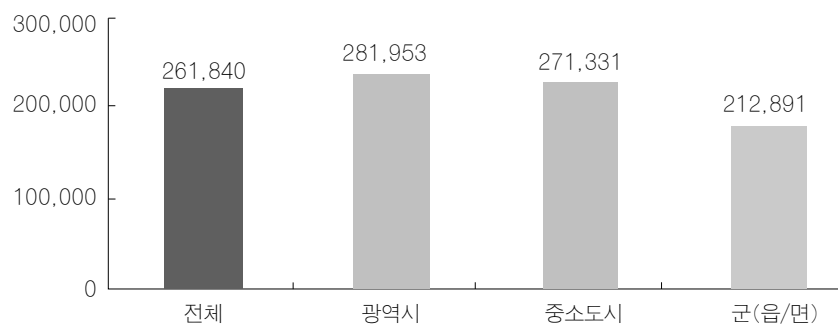
다. 가계의 지출구조

□ 600가구의 월평균 손자녀 양육비는 26만 원 정도였고, 광역시의 경우는 28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는 27만 원 정도였으며, 군의 경우에는 21만 원으로 6~7만 원 정도 적었음.

- 손자녀 양육비가 약 26만 원 정도란 점은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의 양육수준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6년 소득계층별 월평균 자녀 양육비와 비교하면, 99만 원 소득계층의 경우 자녀 양육비 지출이 54만 원이었는데 1가구 2자녀라고 가정할 경우 한 자녀 당 27만 원으로 환산할 수 있음.
- 이번 조사에서 조손가족의 손자녀가 가구당 1.5명이었으므로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비는 약 17만 원 정도로 추산됨. 즉 99만 원 소득계층 자녀 1인당 양육비 27만원에 비해 10만 원 정도 적은 액수이며, 이는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이 매우 열악함을 반증하는 것임.

● ● 시군 간 월평균 자녀양육비 비교 ● ●

(n=600,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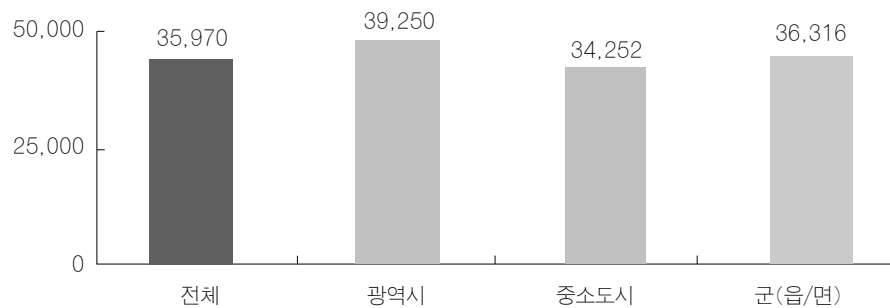


- 도시에 비해 군지역인 농촌의 손자녀 양육비가 적다는 점은 도시에 비해 농촌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농촌의 손자녀 양육 여건이 도시에 비해 나빠 교육비 등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이런 실정은 결국 농촌의 손자녀들이 향후 성장하여 취업이나 진학을 하게 될 경우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손자녀의 의료비 지출은 월평균 36,000원 정도로 추산되었음. 도시 농촌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의료보장제도가 도농의 구별 없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어 기본적인 의료비에 차이가 없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 시군 간 월평균 자녀의료비 비교 • •

(n=600, 단위: 원)



- 자녀의 양육비 및 의료비를 포함하여 조손가족의 월평균 생활비는 약 62만 원 정도임. 광역시는 66만 원이었고, 중소도시가 65만 원, 농촌지역인 군이 5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 시군 별 월평균 생활비 • •

(단위: 명, %, 원)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합계	평균 (원)
전 체	35(5.8)	180(30.0)	309(51.5)	60(10.0)	16(2.7)	600(100.0)	619,927
광역시	11(2.4)	39(23.1)	101(59.8)	19(11.2)	6(3.6)	169(100.0)	660,751
중소도시	11(3.6)	95(31.5)	152(50.3)	34(11.3)	10(3.3)	302(100.0)	648,276
군(읍/면)	20(15.5)	46(35.7)	56(43.4)	7(5.4)	0(0.0)	129(100.0)	500,078

3. 한부모가족 현황

가. 한부모가족 현황

-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사람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부자 혹은 모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가 모든 경우에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 즉, 한부모와 그 부모의 보호를 요하는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하며,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보호하지 않는 부모는 가족이나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¹³⁾
- 이혼, 사망, 별거, 유기, 그리고 미혼모 등의 발생 증가로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으로 보편화되면서 가족 위기는 가족해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부모가족은 구조적인 결손과 더불어 가족 기능상의 결손으로 가족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음.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한부모가족은 2001년 118만 가구, 2002년 123만 가구, 2003년 128만 가구, 2004년 133만 가구, 2005년 137만 가구, 2006년 139만 가구, 2007년 142만 가구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13) 최경석 외,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2003.

• •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 • •

(단위:명)

년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186,648	1,237,884	1,286,440	1,331,449	1,376,021	1,393,515	1,420,790
모자가구	951,866	989,603	1,024,865	1,056,877	1,088,059	1,099,848	1,119,667
부자가구	234,782	248,281	261,575	274,572	287,962	293,667	301,123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 한부모가구는 1985년 총 가구의 8.9%에서 1995년 7.4%로 감소하다가 2000년 7.9%, 2005년 8.6%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한부모가구 형성요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이혼이 1995년 12만4천 가구에서 2005년 39만9천 가구로 급증했음.

• • 한부모가구 형성요인별 현황 • •

(단위 : 천가구,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총 가구		9,571	11,354	12,958	14,311	15,887
한부모가구		848	889	960	1,124	1,370
가구주와 혼인상태	유배우	254	227	216	252	328
	사별	443	498	526	502	501
	이혼	50	79	124	256	399
	미혼	101	85	94	122	142
한부모 가구비율		8.9	7.8	7.4	7.9	8.6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총 가구는 15,989천 가구이며, 이중 여성가구주 가구는 3,145천 가구이다. 이 수치는 1975년 12.8%에서 2006년 19.7%로 증가함으로써 20년간 약 6.9%가 증가함.

- 한부모 가정 형성의 원인이 과거 전쟁사별자 등에서 이혼 증가로 변화함에 따라 심리·정서적 차이와 삶의 경험, 사회적 인식의 차이 등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¹⁴⁾

- 한부모가족 중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4만9천 가구로 재가보호나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은 7만3천 가구, 국민기초수급대상은 7만4천 가구, 국가보호 대상은 67가구임.

• •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방법별 현황 • •

(단위: 세대/명, 2007.12.31현재)

가정현황		저소득 한부모가족 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국민기초 수급대상	국가보호 대 상
			소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합 계	세 대	149,947	73,471	72,632	839	74,409	67
	인 원	395,335	190,303	188,040	2,263	204,882	150
모자 가정	세 대	118,074	57,924	57,085	839	60,108	42
	인 원	315,220	148,919	146,656	2,263	166,202	99
부자 가정	세 대	29,873	15,547	15,547	-	14,301	25
	인 원	80,115	41,384	41,384	-	38,680	51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6.

- 통계청의 연도별 이혼건수와 조이혼율¹⁵⁾을 보면,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200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04년 2.9%, 2005년 2.6% 수준임. 이러한 이혼건수 및 이혼율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한부모가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14) 여성가족부, 모·부자복지시설 운영모델 개발 기초연구, 2006.

15)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 ●

(단위 : 천건,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이혼건수	68.3	79.9	91.2	116.7	118.0	120.0	135.0	145.3	167.1	139.4	128.5
조이혼율	1.7	2.0	2.5	2.5	2.5	2.5	2.8	3.0	3.5	2.9	2.6

※ 자료 :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2005년 이혼건 당시 미성년자 자녀수 현황을 보면, 무자녀 이혼은 35.5%인데 비해, 유자녀 이혼이 63.4%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자녀양육권을 가진 자가 한부모가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재혼을 하기 전까지 혹은 영구적으로 계속된다고 볼 수 있음.

● ●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수 ● ●

(단위 : 건, %)

계	자녀수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미상
128,468 (100.0)	45,635 (35.5)	35,033 (27.3)	40,296 (31.4)	6,037 (4.7)	1,467 (1.1)

※ 자료 : 통계청, 2005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나.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 한부모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현황을 보면, 모자 보호시설은 42개이고, 모자시설에서 퇴소 후 주거만 보장하는 모자자립시설은 4개소이며, 일시보호시설은 14개, 미혼모자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25개, 15개소로 총 100개 시설이 있음.

• • 시설유형별 시설 현황('08.6.30) • •

시설유형	모자 보호시설	모자 자립시설	일시보호 시설	미혼모자 시설	공동생활 가정	계
시설 수	42	4	14	25	15	10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8.

□ 시설현황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첫째, 모자자립시설이 모자보호시설의 약 10%에 불과하다는 점임. 이는 모자보호시설을 퇴소할 당시 대부분 자립을 하기 때문에 자립시설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다른 한편 모자보호시설 거주자의 인적 자원이 취약하고 성별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만연된 상황인 점에 비추어본다면, 시설공급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 것일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음.¹⁶⁾

□ 이런 사실은 변용찬(2000)¹⁷⁾의 시도별 시설수요에 대한 추계에서 모자보호시설이 약 49개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둘째, 모·부자복지시설현황에서는 부자복지시설이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부자보호시설에 관한 법적 규정이 2002년도에 신설된 데 기인한 것임. 지금까지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주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단체나 기관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형태로 지원되어 왔음.

16) 여성가족부, 모·부자복지시설 운영모델 개발 기초연구, 2006.

17) 변용찬(2000)은 시도별 전원을 허용할 경우 2010년까지 모자복지시설이 약 70개소가 더 신설되어야 한다고 추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선도시설 8개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3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 그러나 부자가정의 경제적 실태와 주거현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자녀방임의 문제가 심각하여 시설보호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 할 수 있음.¹⁸⁾

● ● 모자·부자 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현황('08. 6. 30. 현재) ●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자 보호	41	6	6	5	1	1	1	1	2	1	1	2	4	2	5	2	1
정원 (세대)	1,084	143	174	169	40	22	22	20	60	24	40	40	86	39	112	50	43
부자 보호	1	-	-	-	1	-	-	-	-	-	-	-	-	-	-	-	-
정원 (세대)	20	-	-	-	20	-	-	-	-	-	-	-	-	-	-	-	-
모자 자립	4	-	-	-	-	1	-	-	1	-	1	-	1	-	-	-	-
정원 (명)	62	-	-	-	-	21	-	-	10	-	7	-	24	-	-	-	-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 ● 지역별 모자일시보호시설 현황('08. 6. 30. 현재) ●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자 일시	14	2	1	3	1	-	1	1	1	-	-	1	1	-	-	1	1
정원 (명)	485	100	30	57	24	-	55	37	25	-	-	27	50	-	-	50	3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18) 여성가족부, 모·부자복지시설 운영모델 개발 기초연구, 2006.

● ● 모(부)자보호시설('08. 6. 30. 현재) ● ●

시·도	시 설 명	시설장	입소정원	운영주체	전화번호
계	42개소		1,084세대		
서울 (6)	성심모자원	우은영	20	성심원	02-712-5287
	해오름빌(구 해방)	배경자	24	해방모자원	02-754-5702
	영락모자원	유순도	32	영락사회복지재단	02-941-1970
	동광모자원	김신옥	24	서울동광원	02-930-5782
	창신모자원	권명식	23	창신모자원	02-2612-7142
	평화모자원	한신옥	20	평화원	02-2614-4303
부산 (6)	은애모자원	조생래	22	은애모자원	051-244-2508
	안나모자원	홍은표	35	안나원	051-241-2421
	청학모자원	이은옥	47	청학원	051-403-6515
	한나모자원	김정수	27	한나모자원	051-293-3800
	마리아모자원	손정금	21	마리아모자원	051-504-2456
	다비다모자원	최영희	22	영락복지회관	051-244-2508
대구 (5)	소망모자원	한정자	60	소망원	053-557-5798
	기독교가정복지관	안희중	20	기독교가정복지관	053-471-4096
	목련모자원	안목단	29	미망인모자복지회	053-763-5186
	자용모자복지관	박충현	30	자용원	053-564-1043
	본마을빌라	조은아	30	TLM코리아재단	053-568-5115
인천 (2)	용신모자원	이선민	40	용신원	032-832-1468
	아담채(부자보호)	박은성	20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 노회유지재단인천교회	032-461-2324
광주 (1)	인애모자원	김인제	22	인애동산	062-672-9312
대전 (1)	루시모자원	임우현	22	기독교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042-256-2911
울산 (1)	보리수마을	최광선	20	원각선원	052-245-5321
경기 (2)	새소망빌라	이재림	24	월드선교회유지재단	032-343-4398
	세림주택	임선옥	36	세림복지법인	031-881-0075
강원 (1)	성은모자원	손광필	24	강릉중앙재단	033-645-3302
충북 (1)	성가마을	박선례	40	천주교회 청주교구유지재단	043-211-5923
충남 (2)	세화주택	남차술	20	세화	042-841-0113
	에벤에셀모자원	유월규	20	에벤에셀모자원	041-956-4433
전북 (4)	원광모자원	박선순	20	한울안	063-222-7383
	신광모자원	김미숙	24	인성재단	063-462-7749
	성애모자원	최성완	22	성애원	063-855-1605
	이산모자원	오세현	20	이산원	063-244-8018
전남 (2)	목포태화모자원	김길옥	24	홍익인간	061-276-1434
	함평자광모자원	유영자	15	함평자광원	061-322-2588
경북 (5)	포항모자원	신인숙	23	포항양육원유지재단	054-247-4261
	경주애가원	김성녀	25	경주자선단	054-772-5440
	안동복지원	김윤애	24	안동복지원	054-852-0929
	상록모자원	박명숙	20	복지마을진흥회	054-971-0897
	후포영신모자원	신춘웅	20	후포영신모자원	054-788-2111
경남 (2)	통영신애원	김경련	20	통영신애원	055-649-1020
	희망모자원	송수홍	30	희망모자원	055-336-2121
제주 (1)	제주모자원	오경태	43	제주모자원	064-702-5275

〈모자자립시설('08. 6. 30. 현재)〉

시·도	시 설 명	시설장	입소정원	운영주체	전화번호
계	4개소		62세대		
광주 (1)	인애자립장	김인제	21	인애동산	062-672-9312
경기 (1)	늘푸른빌라	조정아	10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031-899-9100
충북 (1)	상록수	정은경	7	청주YWCA	043-269-2070
전북 (1)	신광자립원	김미숙	24	인성재단	063-461-2572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 ● 모자일시보호시설('08. 6. 30. 현재) ● ●

시·도	시 설 명	시설장	입소정원	운영주체	비 고
계	14개소		485명		
서울 (2)	샤인힐	최인자	70	은강회	구 자매복지회관
	서울모자의집	김상림	30	수궁원	
부산 (1)	성현여성의집	정미자	30	성현원	
대구 (3)	대구여성회관 태평상담실	이상욱	30	대구광역시	
	자비의쉼터	서형덕	13	감천	
	대구가톨릭 여성의집	구수영	14	대구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인천 (1)	여성의쉼터	김 현	24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광역시	
대전 (1)	구세군대전여성의집	도시자	55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	
울산 (1)	울산여성의쉼터	서성애	37	라파복지재단	
경기 (1)	가톨릭여성의집	이현숙	25	천주교수원교구 유지재단	
충남 (1)	테레사의집	김정림	27	수궁원	
전북 (1)	삼성여성의쉼터	김옥정	50	삼성원	
경남 (1)	창원여성의집	조현순	50	범숙	
제주 (1)	한빛여성의쉼터	강미경	30	한빛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 • 미혼모자시설 • •

(‘08. 6. 30. 현재)

시·도	시 설 명	시설장	입소정원	운 영 주 체	전화번호
계	25개소		649명		
서울 (5)	구세군여자관	박상숙	35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02-363-5722
	애란원	한상순	40	한국장로교복지재단	02-393-4723
	열린집	이미라	26	대한사회복지회(사단)	02-552-7420~1
	성심의어머니집	최태자	9	예수성심전교수녀회	02-2691-4365
	아름뜰	윤상오	9	홀트아동복지회	02-334-4614
부산 (2)	마리아모성원	신경화	50	마리아수녀회(재단)	051-253-7543
	사랑샘	박성희	20	대한사회복지회	051-621-7003
대구 (1)	대구혜림원	이석임	50	대한사회복지회	053-756-1392
인천 (1)	인천자모원	신지영	29	천주교인천교구유지재단	032-772-0073
광주 (2)	인애복지원	이애신	30	인애동산(사회복지법인)	062-651-8585
	우리집	이선희	20	대한사회복지회	062-222-9349
대전 (2)	아침뜰	김은나	50	홀트아동복지회	042-585-3004
	대전자모원	심상희	9	천주교대전교구유지재단	042-934-6934
울산 (1)	물푸레	구정화	15	물푸레복지재단	052-903-9200
경기 (5)	에스더의집	이광미	50	동방사회복지회	031-656-3472
	늘푸른집	김순덕	8	대한사회복지회	031-877-2841
	생명의집	소현숙	9	성빈센트뵤자비의수녀회	031-334-7168
	새싹들의집	박인희	9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031-457-4383
	고운뜰	이선경	29	홀트아동복지회	031-216-9004
강원 (1)	마리아의집	김여심	40	천주교춘천교구	033-262-4617
충북 (1)	자모원	한윤미	50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043-212-0437
전남 (2)	성모의집	하비버리스트	8	대한사회복지회	061-279-8004
	어린이마동지	강은숙	9	대한사회복지회	061-333-2882
경북 (1)	경북샤론의집	강다선	10	동방사회복지회	053-816-1016
제주 (1)	애서원	임애덕	35	청수(사회복지법인)	064-773-201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

('08. 6. 30. 현재)

시·도	시 설 명	시설장	입소정원	운영주체	전화번호
계	15개소		176명		
서울 (2)	애란모자의집	한상순	26	한국장로교복지재단	02-391-4725
	달빛둥지	이미향	12	진가복지재단	02-912-1616
부산 (1)	마리아모성의집	신경화	10	마리아수녀회	051-255-7543
대구 (1)	잉아터	한재경	10	대한사회복지회	053-753-1396
인천 (1)	스텔라의집	허명숙	10	천주교인천교구	032-864-0055
광주 (1)	평안의집	이애신	10	인애동산	062-652-0556
울산 (1)	물푸레	구정화	10	물푸레복지재단	052-903-9200
경기 (3)	천사의집	공지태	10	낙원복지재단	031-864-2004
	로템의집	김향래	8	기독교대한감리회	031-224-3397
	모성의집	온기숙	20	성빈센트뿔 자비의수녀회	031-334-7168
강원 (1)	요셉의집	박순자	10	천주교춘천교구	033-242-4617
충남 (1)	새소망의집	이단주	10	재단한구세군 유지재단	041-568-0691
전남 (1)	샬로메나눔터	김윤아	10	사회복지법인 샬로메	061-744-0550
경남 (1)	생명터	정순자	10	천주교마산교구	055-244-1784
제주 (1)	아기사랑엄마의집	임애덕	10	사회복지법인 청수	064-723-201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4. 소년소녀가족 현황

- 소년소녀가족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임.
- 즉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복역 등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진 세대로서 국가의 보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세대를 말함.
- 소년소녀가족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3년 6,184명에서 2004년 5,444명, 2005년 4,332명, 2006년 3,271명, 2007년 2,501명으로 계속 줄고 있음. 소년소녀가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실제 소년소녀가족 세대 감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1998년부터 15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족을 가정위탁보호세대로 전환한 결과임.

● ● 소년소녀가정 세대 및 아동수 현황 ● ●

(단위 : 세대, 명)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세대수	3,994	3,504	2,755	2,086	1,630
아동수	6,184	5,444	4,332	3,271	2,501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 2007년 소년소녀가족의 발생유형을 보면 부모사망 633건, 가출·행불 423건, 이혼 353건, 폐질심신장애 137건, 노령 4건 순임.

● ● 소년소녀가정 발생유형 현황 ● ●

연도	총계	부모 사망	폐질 심신장애	가출·행불	이 혼	노 령	기타 (복역등)
2000	6,229	2,840	395	1,958	721	1	314
2001	5,248	2,291	378	1,588	672	19	300
2002	4,531	1,903	324	1,460	643	2	199
2003	3,994	1,681	313	1,181	638	-	181
2004	3,504	1,290	240	1,232	570	18	154
2005	2,755	1,066	171	836	530	16	136
2006	2,086	800	139	579	474	2	92
2007	1,630	633	137	423	353	4	8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 소년소녀가족의 주거형태는 친지택 498세대(30.6%), 자가 240세대(14.7%), 영구임대 232세대(14.2%), 전세 218세대(13.4%), 월세 214세대(13.1%) 순임. 자가 및 영구임대를 제외한 주거형태는 전체의 71%를 차지해 소년소녀가족의 대부분이 안정적 주거형태를 갖지 못하고 있음.

● ● 소년소녀가정 주거형태 현황 ● ●

연도	총계	자 가	전 세	월 세	친 지	영구 임대	기 타
2000	6,229	1,116	568	389	3,046	971	139
2001	5,248	891	459	421	2,418	774	285
2002	4,531	803	349	362	2,073	567	377
2003	3,994	767	251	369	1,744	537	326
2004	3,504	623	232	360	1,396	472	422
2005	2,755	490	293	304	921	442	305
2006	2,086	264	324	274	608	294	322
2007	1,630	240	218	214	498	232	228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재학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이 1,226명(49%)로 제일 많고, 중학교 재학 789명(31.5%), 초등학교 재학 401명(16%) 순으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의 아동임.

• • 소년소녀가정 아동 재학현황 • •

(단위 : 명)

연도	미취학자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미재학자
2000	121	1,862	3,217	4,041	22	316
2001	133	1,640	2,611	3,414	16	246
2002	115	1,478	2,232	2,936	10	176
2003	99	1,309	1,966	2,668	9	133
2004	87	1,244	1,681	2,331	3	98
2005	85	901	1,343	1,923	3	77
2006	39	572	1,031	1,570	2	57
2007	25	401	789	1,226	3	57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 소년소녀가장가정의 지역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 353명(14.1%), 전북 347명(13.8%), 경북 306명(12.2%), 경기 275명(11%), 전남 259명(10.4%) 순으로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 소년소녀가장가정 지역별, 연도별 현황 • •

(단위 : 명)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6,184	5,444	4,332	3,271	2,501
서울	327	234	227	235	171
부산	246	191	194	153	98
대구	170	173	149	127	108
인천	120	137	124	104	110
광주	307	391	175	63	54
대전	123	100	80	49	41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울산	86	73	58	31	22
경기	698	602	455	334	275
강원	142	144	124	108	93
충북	484	530	497	451	353
충남	253	211	166	85	57
전북	883	741	676	500	347
전남	1,089	861	527	356	259
경북	545	504	450	372	306
경남	457	316	227	148	123
제주	254	236	203	155	84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 소년소녀가족이 성인 보호자 없이 지역사회에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방임이라는 아동복지 현장과 학계의 지적이 계속되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대한 체계적 보호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로 인해 가정위탁세대로 전환하도록 하였음.

□ 가정위탁보호는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

□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위탁아동 현황을 보면, 2003년 3,985세대, 5,577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7년 11,622세대, 16,20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 되고 있음.

□ 2007년 위탁아동 16,200명 중 일반위탁아동은 1,238명으로서 전체 일반위탁양육아동의 7.6%에 불과함. 반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대리양육가정 위탁아동은 10,112명으로 전체의 62.4%, 친인척위탁가정은 4,850명으로 전체

의 29.9%로서 현재 우리나라 가정위탁은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위탁가정의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 •

(단위 : 세대, 명)

연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세대	아동	세대	아동	세대	아동	세대	아동
2002	3,985	5,577	1,249	1,796	2,453	3,387	283	394
2003	5,313	7,565	2,315	3,458	2,563	3,541	435	566
2004	7,169	10,198	3,450	5,196	3,057	4,133	662	869
2005	8,816	12,562	5,078	7,552	2,966	4,007	772	1,003
2006	10,253	14,465	6,152	9,062	3,097	4,160	1,004	1,243
2007	11,622	16,200	6,975	10,112	3,651	4,850	996	1,238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 2007년 한 해 동안 가정위탁 된 아동 16,200명의 가정위탁사유를 살펴보면, 소년소녀가정에서 전환이 10,031명(61.9%), 시설보호에서 전환이 212명(1.3%), 일시보호아동 등 기타가 5,957명(36.8%)임.

• • 가정위탁보호 사유별 현황 • •

연도	계	소년소녀가정에서 전환	시설보호에서 전환	기타 (일시보호아동 등)
2002	5,577	4,257	24	1,296
2003	7,565	5,205	44	2,316
2004	10,198	6,787	103	3,308
2005	12,562	9,069	156	3,337
2006	14,465	9,637	179	4,649
2007	16,200	10,031	212	5,957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5. 미혼모 가족 현황

가. 미혼모 가족 현황

- 우리나라는 현재 미혼모 발생 예방 및 십대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프로그램 보급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담당하는 정부차원의 종합담당부서가 전무한 상황임.
-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고, 미혼모시설 입소자 현황으로 추계되고 있음. 시설입소 미혼모 현황을 보면 2002년 1,835명, 2003년 1,791명, 2005년 1,970명, 2006년 1,985명, 2007년 2,16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미혼모의 연령별 현황(2007년)을 살펴보면, 21~25세 미혼모가 713명(33%), 16~20세 미혼모 694명(32.1%), 26~30세 미혼모 377명(17.5%), 31~35세 210명(9.7%), 36세 이상 93명(4.3%), 15세 이하 74명 (3.4%) 순임.
- 최근 5년간의 연령구간별 증가 추이를 보면, 36세 이상 미혼모가 2003년 20명에서 2007년 93명으로 4.6배나 증가하였고 31~35세 미혼모가 82명에서 210명으로 2.6배, 26~30세 미혼모가 168명에서 377명으로 2.2배 증가하였음.
- 26세 이상 미혼모의 뚜렷한 증가는 양육을 희망하는 성인 여성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준비를 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시설입소 미혼모 연령별 현황(최근5년간) • •

연도별	계(명)	15세 이하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2003	1,835	52	2.8	827	4.5	686	37.4	168	9.2	82	4.5	20	1.1
2004	1,791	24	1.3	795	44.4	641	35.8	218	12.2	86	4.8	27	1.5
2005	1,970	37	1.9	758	38.5	740	37.6	261	13.2	107	5.4	67	3.4
2006	1,985	69	3.5	731	36.8	694	35	280	14.1	132	6.6	79	4
2007	2,161	74	3.4	694	32.1	713	33	377	17.5	210	9.7	93	4.3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 미혼모자시설 연령별 입소자현황 ('07년)¹⁹⁾ • •

시설명	계	13세 이하	14~16세	17~19세	20~24세	25~29세	30세 이상
계(25)	2,161	3	143	514	771	404	326
서울(5)	397		28	73	153	79	64
부산(2)	267		12	65	97	58	35
대구(1)	192	2	13	50	73	34	20
인천(1)	98		4	32	32	20	10
광주(2)	229		20	68	89	38	14
대전(2)	203		11	53	68	29	42
울산(1)	46		8	11	12	12	3
경기(5)	454	1	30	101	141	81	100
강원(1)	81		3	22	29	14	13
충북(1)	56		6	15	12	13	10
전남(2)	65		5	11	35	10	4
경북(1)	39		1	5	16	9	8
제주(1)	34		2	8	14	7	3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6.

□ 미혼모 자녀 보육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2,029명 중 입양이 1,182명 (58.3%)으로 제일 많고 본인양육 591명(29.1%), 부모가족 양육 22명(1.1%), 미혼부가 양육 20명(1.0%) 순임.

19) 입소모 기준.

• • 미혼모 자녀 보육실태 현황 • •

(단위 : 명)

연도별	계	입양	양육				
			본인양육	부모가족양육	미혼부가양육	기타	소계
2003	1,718	1,266	225	9	13	205	452
2004	1,691	1,215	268	4	8	196	476
2005	1,891	1,320	323	48	18	182	571
2006	1,883	1,173	439	21	16	234	710
2007	2,029	1,182	591	22	20	214	847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시설퇴소 미혼모 사회복지귀 현황은 취업이 974명(46.4%)으로 가장 많고, 기타가 684명(32.6%), 복학 186명(8.9%), 결혼 144명(6.9%), 모자시설 등 입소 90명(4.3%), 자영사업 11명(0.5%) 순임

• • 시설퇴소 미혼모 사회복지귀 현황 • •

(단위:명)

연도별	계	취업	복학	결혼	자영사업	모자시설등 입소	기타
2003	1,796	1,012	240	91	17	16	420
2004	1,835	1,036	228	65	16	37	453
2005	1,953	979	283	117	43	52	479
2006	2,012	882	242	133	22	48	685
2007	2,099	974	186	144	11	90	694

주) 퇴소시 사회복지귀 예정 현황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미혼모가정 현황을 보면 2005년 1,940명, 2006년 1,920명, 2007년 2,161명이고,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는 2005년 51명, 2006년 65명, 2007년 83명 임.

• • 미혼모가정 시설유형별, 지역별, 연도별 현황 • •

(단위 : 개소, 명)

유 형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연도별 (시설수)	2005 (18)	2006 (20)	2007 (25)	2005 (9)	2006 (16)	2007 (15)
계	1,940	1,920	2,161	51	65	83
서울	377	387	397	5	7	15
부산	236	232	267	7	5	5
대구	271	209	192	-	-	4
인천	100	98	98	-	4	9
광주	247	191	229	5	5	6
대전	39	202	203	-	-	-
울산	-	4	46	-	-	4
경기	365	352	454	4	7	12
강원	168	104	81	5	8	8
충북	101	62	56	-	-	-
충남	-	-	-	6	5	5
전북	-	-	-	7	11	-
전남	4	42	65	8	5	6
경북	-	-	39	-	-	-
경남	-	-	-	4	4	6
제주	32	37	34	-	4	3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6.

□ 증가하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미혼모의 대부분이 아동 양육을 포기하고 있으며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90%이상이 미혼모가 포기한 아동으로서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인력의 손실임.

□ 미혼모, 특히 십대 미혼모는 학업중퇴 및 중단, 취업기술의 부족, 생계의 막급함으로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에의 의존을 초래하여 높은 사회비용을 부담시킴.

□ 미혼모의 빈곤문제는 아동 빈곤문제로 이어져 사회적 참여 기회와 미래의 박탈로 이어짐.

나. 미혼모가족 생활실태²⁰⁾

- 현재 한국에서 미혼모나 부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은 입양기관의 미혼모 상담부서에 찾아온 미혼모나 부와, 미혼모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실태 파악을 통해서임. 이런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혼모들에 대한 실태는 거의 파악이 불가능한 형편임.
- 본 장의 미혼모가족 생활실태 자료는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4대 해외입양기관)의 미혼모 상담부서의 내부통계를 기초한 것임.

1. 입양기관에 아동을 의뢰한 미혼모부 실태

1) 연령

- 4대 해외입양기관에 아동을 의뢰한 미혼모는 2002년 3,523명, 2003년 3,700명, 2004년 3,297명이었음. 그중 2002년은 미혼모 중 15세미만이 5.2%이던 것이, 2003년 4.5%, 2004년 3.5%로 약간씩 감소하고 있음.
- 미혼모의 연령은 해마다 16세에서 20세가 가장 많았는데 2002년 53.1%이던 것이 2003년 41.6%, 2004년 35.8%로 감소하였고 26세 이상의 미혼모는 2000년 8.9%에서 2004년 17.6%로 증가하였음. 21세에서 25세의 미혼모는 2000년 32.8%, 2003년 36.6%, 2004년 3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2005.12. 인용.

• • 입양기관의 미혼모 연령 • •

단위(명/%)

연령 연도	15세 미만	16-20세	21-25세	26세 이상	계
2002	180(5.2)	1,827(53.1)	1,126(32.8)	305(8.9)	3,438
2003	172(4.5)	1,586(41.6)	1,396(36.6)	662(17.3)	3,816
2004	122(3.5)	1,233(35.8)	1,170(34.0)	918(26.7)	3,443

2) 미혼모의 학력

□ 미혼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나 졸업이 가장 많았음. 고등학교 중퇴나 졸업이 2002년 53.9%이던 것이 2004년 57.5%이었음.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 임신한 미혼모도 많아 2002년 24.9%, 2003년 19.5%, 2004년 16.9%이었음.

□ 미혼모중 대학교 중퇴나 졸업한 사람이 2002년 11.7%, 2003년 9.3%, 2004년에 14.1%로서 미혼모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04년에는 고등학교 중퇴나 졸업이상의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87%이상이었음.

• • 미혼모의 학력 • •

단위(명/%)

학력 연도	초 중퇴 및 졸업	중학교 중퇴및 졸업	중학교 재학	고등 중퇴 및 졸업	고등학교 재학	대학교 중퇴 및 졸업	대학교 재학	계
2002	19(0.8)	233(9.6)	35(1.4)	1,304(53.9)	285(11.7)	258(10.7)	284(11.7)	2,418
2003	35(1.3)	305(11.0)	37(1.3)	1,555(55.9)	249(8.9)	344(12.3)	259(9.3)	2,784
2004	10(0.5)	237(11.0)	33(1.5)	1,239(57.5)	161(7.5)	304(14.1)	170(7.9)	2,154

주) 미혼모의 학력은 3개 기관의 통계만을 갖고 하였음. 다른 한 입양기관의 통계는 학력 분류방법에 차이가 있어 이용 할 수가 없었음.

3) 미혼모 직업

- 미혼모의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았는데 2002년 45.5%, 2003년 46.3%, 2004년 38.2%이었음.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학생으로서 2002년 24.6%, 2003년 18.8% 2004년 16.7%로 해마다 약간 씩 줄기는 했으나 두 번째로 많았음. 그 외에 회사원, 서비스직, 생산직, 점원 등의 순으로 많았는데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해 직업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 미혼모 직업 • •

단위(명/%)

연도 \ 직업	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학생	회사원	기술직	자영업	점원	기타	계
2002	1,475 (45.5)	265 (8.2)	214 (6.6)	798 (24.6)	213 (6.6)	43 (1.3)	8 (0.2)	118 (3.6)	108 (3.3)	3,242
2003	1,775 (46.3)	348 (9.1)	210 (5.5)	719 (18.8)	407 (10.6)	74 (1.9)	29 (0.8)	93 (2.4)	175 (4.6)	3,830
2004	1,506 (48.2)	271 (8.7)	186 (6.0)	520 (16.7)	332 (10.6)	55 (1.8)	12 (0.4)	104 (3.3)	137 (4.4)	3,123

4) 가족사항

- 미혼모들의 가족사항은 양친이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68.4%이고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이 22.6% 이었음.

• • 가족사항 • •

단위(명/%)

연도 \ 가족사항	양친	한부모 (이혼, 별거)	한부모 (사망)	기타	계
2002	2,066(68.4)	854(28.3)	74(2.5)	25(0.8)	3,019
2003	2,466(66.8)	1,078(29.2)	88(2.4)	58(1.6)	3,690
2004	2,061(69.6)	817(27.6)	59(2.0)	25(0.8)	2,962

5) 가족동거 여부

- 미혼모 중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2002년 62%, 2003년 61.9%, 2004년 52.2% 이었음. 가족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2004년 41.5%이었는데 가출로 인하여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가 2002년 10%, 2003년 10.9%, 2004년 8.6%이었음.

• • 가족동거여부 • •

단위(명/%)

연도	동거여부	동거	별거				계
			취업	학생	가출	기타	
2002		2,059(62.0)	546(16.4)	145(4.4)	333(10.0)	237(7.1)	3,320
2003		2,277(61.9)	572(15.5)	147(4.0)	402(10.9)	283(7.7)	3,681
2004		1,752(58.5)	609(20.3)	149(5.0)	257(8.6)	226(7.6)	2,993

나. 미혼부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 미혼부에 대한 자료는 얻기가 힘들어 한 입양기관의 내부자료 만을 이용하여 미혼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1) 미혼부의 연령

- 미혼부의 연령은 14세 미만에서 45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2002년은 16세에서 20세의 미혼부가 가장 많아 36.5%이었음. 그러나 13세 14세의 저연령 미혼부도 32명(2.3%)이나 되었음. 2003년은 14세 미만의 미혼부가 1명이었으며 21-26세의 미혼부가 가장 많아 39.3%이었고 2004년 역시 21세에서 26세의 미혼부가 가장 많은 40.5%였음.

• • 미혼부의 연령 • •

단위(명/%)

연령 연도	13-14세	15-20세	21-26세	27-45세	모름	계
2002	32(2.3)	508(36.5)	360(25.8)	259(18.6)	157(11.3)	1,393
2003	1(0.1)	443(30.1)	578(39.3)	320(21.8)	128(8.7)	1470
2004	-	300(25.9)	470(40.5)	285(24.6)	96(8.3)	1,160

2) 미혼부 학력

□ 미혼부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학교 중퇴 및 졸업이었음.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재학 중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미혼부도 있었는데 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혼부가 해마다 약 7%정도 되며 대학교 재학 중인 미혼부도 매년 약 15-16%정도 되었음.

□ 전체적으로 미혼부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중퇴 이상이었음. 그러나 미혼부의 학력을 모른다고 한 미혼모도 약 18%정도로서 미혼모들이 미혼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없이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 미혼부 학력 • •

단위(명/%)

학력 연도	초 중퇴 및 졸업	중학교 중퇴및 졸업	중학교 재학	고등 중퇴 및 졸업	고등학교 재학	대학교 중퇴 및 졸업	대학교 재학	모름	계
2002	9(0.6)	62(4.5)	2(0.1)	561(40.3)	105(7.5)	156(11.2)	225(16.2)	273(19.6)	1,393
2003	2(0.1)	75(5.1)	4(0.3)	592(40.3)	106(7.2)	205(13.9)	222(15.1)	264(18.0)	1,470
2004	2(0.2)	43(3.7)	5(0.4)	453(39.1)	81(7.0)	190(16.4)	172(14.8)	209(18.0)	1160

3) 미혼 부 직업

- 미혼부의 직업은 무직과 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무직은 2002년 20.5%, 2003년 20%, 2004년 18.2%이었고 학생은 2002년 20.2%, 2003년 19.0%, 2004년 19.7%이었음. 그 다음이 사무직 및 기술전문직이었는데 2002년 14.2%, 2003년 15.8%, 2004년 16.9%이었음. 그러나 미혼부의 직업을 모른다고 한 미혼모도 약 매년 약 14-15%정도 되었음.

• • 미혼부 직업 • •

단위(명/%)

직업 연도	무직	일용노동 및 생산직	종업원 및 점원	학생	사무직 및 기술 전문직	군인	상업	모름	기타	계
2002	285(20.5)	100(7.2)	132(9.5)	281(20.2)	198(14.2)	88(6.3)	50(3.6)	227(16.3)	32(2.3)	1,393
2003	294(20.0)	78(5.3)	179(12.2)	280(19.0)	232(15.8)	101(6.9)	45(3.1)	213(14.5)	48(3.3)	1,470
2004	211(18.2)	72(6.2)	110(9.5)	229(19.7)	196(16.9)	75(6.5)	58(5.0)	164(14.1)	45(3.9)	1,160

다. 미혼모보호 시설 이용과 지역사회거주 미혼모

- 4대 입양기관에서 상담 한 미혼모 중 2002년 33%(1,087명), 2003년 32.8%(1,168명), 2004년 35%(1,107명)가 미혼모 보호시설을 이용하였고 그 외의 다른 미혼모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아기를 분만한 것으로 나타났음.

• • 미혼모 시설 이용한 미혼모 수 • •

단위(명/%)

연도	미혼모수	시설입소 미혼모	지역사회거주 미혼모
2002	3420	1130(33.9)	2290(66.1)
2003	3614	1168(32.3)	2246(67.7)
2004	3183	1107(35.0)	2076(65.0)

라. 장애아 및 의료적인 관찰 요망 아동

□ 입양기관에 의뢰된 아동 중 36개월 미만의 미숙아 및 2.5Kg 미만의 저체중아가 2002년 14.2%, 2003년 10.8% 2005년 15.2%이었고 장애나 특별한 의료적 관찰이 요망되는 아동이 2002년 7.9% 2003년 6.2% 2004년 10.8%로, 저체중이나 의료적인 관찰이 요망되는 아동이 2002년이나 2003년에 비하여 2004년에는 더 많이 증가하였음.

• • 저체중 및 의료적 관찰 대상아동 • •


단위(명/%)

연도	정상	미숙아 및 저체중아	장애아 및 의료적 관찰
2002	3275	464(14.2)	258(7.9)
2003	3911	398(10.8)	241(6.2)
2004	3256	496(15.2)	352(10.8)

소외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소외가족 지원정책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소득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양육 및 부양지원정책, 의료보장정책, 가정생활문화정책, 가족보호정책, 기타 가족정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 가족정책의 주요 내용 • •

분류	가족정책의 주요 내용	
	가족단위의 정책	가족원 및 가족유형을 고려한 정책
소득보장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 조세(소득세 공제) •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상 (경로연금, 고용지원, 경로우대) • 모부자가정 • 소년소녀가정 • 고용관련정책
주거보장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가정을 위한 주거정책 (영구임대주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자가정(주거비지원, 보호시설) • 노인(재가목적/입주보호목적)
양육 및 부양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지원(영유아보육정책, 육아휴직제도, 모부자가정, 자녀양육지원) • 노인부양지원(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의료보장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제도 • 의료보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지원(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 노인대상(노인건강진단제도, 치매 신고상담센터, 방문간호서비스)
가정생활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정책, 자원봉사활동, 가정의례, 소비관련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가족보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대상(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
기타 가족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의 서비스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자가정 • 노인 • 아동·소년소녀가정

※ 자료 : 김승권, 한국 가족의 동향과 발전방향, 한국여성단체연합 전문가간담회, 2004.

1. 독거노인 지원정책 및 문제점²¹⁾

가. 독거노인 지원정책 및 사업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관련법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있음.
-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노인자원봉사활동 강화 등 노인 사회참여 촉진, 노인의 소득보장 및 취업기회 확충업무(노후소득보장에 관한 기획, 경로연금 지급에 관한업무, 노인취업기회 확대에 관한 업무, 노인취업 알선센터에 관한 업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육성, 노후여가환경조성 업무를 하고 있음.

• • 취약계층 노인 복지서비스 관련법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6조 (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

21)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초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6. 인용

	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6개 시·도의 노인복지정책현황을 종합해보면,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로연금지급 및 생활비, 주거비 지원 등이 주요업무이며, 교통비 지원, 공동작업장운영, 일거리 마련사업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교실운영 지원 등 공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노인질서봉사대활동 지원강화, 1구 1 노인복지관 건립, 경로당 확충, 노인교실의 프로그램 활성화, 경로근로사업, 복지자원봉사점수 저축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제 운영 활성화, 노인문화 공간 확보 및 경로당 지원 확대, 노인과 아동, 청소년간의 세대간 교류시책 지원, 취업 촉진 및 구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랑의 학당'에서 노인인력을 이용한 청소년 인성교육,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 등이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을 위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2007년 236억 원, 2008년 304억 원), 가사간병도우미 595억 원, 노-노케어 356억 원(지방비 포함), 노인돌보미 바우처 276억 원, 방문보건사업 237억 원, 무료급식 445억 원, 재가노인식사배달 272억 원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현황 ● ●

구 분	예산	사업기간	서비스 제공인력	수혜 독거노인
2008년	304억원	12개월	5,230명	115,060명
2007년	236억원	7개월	6,767명	142,538명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7.6.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은 소득, 건강, 주거 및 사회적 교류 수준을 조사하여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안전망 체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시군구별로 지정된 사업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함.
- 안전 확인 서비스로는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주거상태 점검, 필요한 서비스 욕구 파악 등 임. 생활 교육 서비스는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영양관리 및 간단한 신체기능 유지 프로그램 등 교육 실시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공공-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발굴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주요 내용 ● ●

구 분	주 요 내 용
안전확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 방문 · 안부전화 · 주거상태 점검 · 필요한 서비스 욕구 파악
생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영양관리 · 간단한 신체기능 유지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민간기관 복지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7.6.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5,010명,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 220명으로 93만 명에 이르는 독거노인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력 현황('08년) ● ●

구 분	인원	자 격	근로 조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5,010명	65세 미만 신체 건강한 자	월 임금 60만원, 1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	220명	사회복지사	월 임금 120만원,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7.6.

●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추진실적('07.6~12월) ● ●

안전확인(건)	생활교육(명)	서비스연계(명)	무더위쉼터 안내 및 이송(건)
6,324,886	990,836	550,479	84,864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7.6.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우수활동 대표사례 ● ●

구 분	주요 내용
응급 구호	쇼크로 의식이 없는 독거노인 발견, 119에 연락하여 응급조치
	위 절제수술 이후 위급한 상태로 방치된 독거노인 발견, 119를 통해 응급구조
	당뇨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방치된 독거노인을 119를 통해 응급구조
	뇌출혈로 마비증세가 나타난 독거노인 응급이송 조치
	1주일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누워있는 응급이송 조치
	고열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독거노인에게 응급조치 실시
질병악화 화재 범죄 폭염피해 자살 예방 및 구호	병원진료를 권유를 통해 암 발병 상태 발견
	당뇨로 상처가 악화된 분을 의료원으로 이송, 손가락 절단 예방
	가스렌지를 끄지 않고 발일 나간 독거노인 댁에 방문하여 화재 예방
	여성 독거노인 성폭행사고 신고 및 보호조치 실시
	사기전화를 대신 받아 처리함으로써 피해 예방
	폭염으로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보여 응급조치하여 큰 사고 예방
	자살충동 노인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연계를 통해 극복
	자식을 잃고 우울증에 빠진 독거노인 방문 및 대화를 통해 자살 예방

구 분	주요 내용
장례조치	독거노인 사망 후, 가족 연락 및 장례 조치
자원봉사	서울여대 자원봉사자 연계, 독거노인(100명)에게 가사 지원 및 정서적 서비스 제공
취업알선	취업알선센터 등록을 통해 독거노인 취업 알선
주건개선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로 형광등 및 전기선 수리, 수도꼭지 및 샤워기 교체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와 연계하여 도배, 장판, 싱크대 수납장 교체 등
건강서비스 연계	효림병원과의 연계로 입원치료, 방문간호 등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원과의 연계하여 무료로 한방진료 서비스 제공
시설보호	시설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요양원 입소 연계
가족관계 개선	치매증상이 심해진 독거노인의 가족을 설득하여 동거토록 조치함
직접 서비스 제공	자격증 보유 생활지도사가 지압, 안마, 스포츠 마사지 제공, 청소, 목욕서비스, 밑반찬, 후원금 등 직접 제공
다양한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	의식이 희미한채 방치된 노인 발견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긴급출동, 치매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노인 귀가 조치 후 입소서비스 연계 도시락배달, 기초생활보장급여, 전기공사, 장애인복지급여, 간병인 연계 적십자, 새마을금고 등의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연계로 양곡지원 대학생, 주민, 기업과 연계하여 도배, 썬팅, 대청소, 이·미용서비스, 돌보기, 집수리 서비스 등 제공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생활필수품, 가사도우미 파견 등 연계 결연을 통해 노인돌보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후원으로 돌보미서비스 제공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7.6.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 ●

종 류	시 설	설 치 목 적	입 소 대 상 자	설 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실비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유료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실비노인 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종 류	시 설	설 치 목 적	입 소 대 상 자	설 치
	유료노인 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 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요양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실비노인 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자	"
노인의료 복지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전문 요양시설	치매 ·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치매 ·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유료노인 전문요양 시설	치매 ·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치매 ·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전문 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한하여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
	노인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 교양 ·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시 장 · 군 수 · 구청장에 신고
노인여가 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 취미활동 ·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교교화와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 노인건강유지 ·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
	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 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원인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재가노인 복지시설	주간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노인보호 전문기관	시 · 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 · 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 · 상담용 긴급전화(1389) 운영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 상담 · 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시 · 도지사 지정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노인복지시설현황, 2008. 3.

나. 지역별 독거노인 복지 수요 파악 미흡

□ 지역별로 노인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의 절대적인 규모는 도시지역과 도 · 농 혼합지역이 농 · 어촌 지역에 비하여 크지만,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큼.

- 도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수준이 6.4%로 아직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며, 도·농 혼합지역은 10.1%로 고령화 사회, 농·어촌 지역은 동 비율이 16.6%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이는 다른 복지대상과는 달리 독거노인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입안과 집행에 있어 차지하는 비율이 지역별로 달라야 함을 시사함.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역별로 지역노인대상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조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복지계획을 세워야함.
- 지역별로 노인의 제 특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이 신체적 기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에 실제로 수발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비율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높아 가족부양능력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공적 서비스 제공이 더 절실히 필요할 것임.
- 노인 중 기초보장수급자의 비율을 통하여 노인의 경제 상태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7.5%, 도·농 혼합지역이 9.7%, 농·어촌 지역이 12.9%로 지역별 차이가 큼을 볼 수 있음.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이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임.

• • 지역유형별 노인복지욕구관련 제특성²²⁾ • •

지역유형	시.군.구 수	1개 시.군.구당 평균노인 인구수 ¹⁾ (명)	전체인구중 노인인구 비율 ¹⁾ (명)	독거 노인 비율 ²⁾	무학노 인비율 ²⁾	경제활동 참가율 ³⁾	장기요양 대상자 비율 ⁴⁾	노인중 수급자 비율 ⁵⁾
도시지역	94	19,924	6.4	13.6	35.1	17.1	37.1	7.5
도·농혼합지역	50	19,757	10.1	17.2	50.7	-	-	9.7
농·어촌지역	90	9,447	16.6	21.5	57.7	49.1	57.6	12.9

※ 자료 : 정경희, '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재인용, 2004.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정책 수행과 관련된 재정적 능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자립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큼.

□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2002년 54.8%, 2003년 56.3%, 2004년 57.2%로 증가하다가 2005년 56.2%, 2006년 54.4%, 2007년 53.6%로 감소추세에 있음.

• •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 •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자립도 (%)	59.6	59.4	57.6	54.8	56.3	57.2	56.2	54.4	53.6

※ 자료 : 행정자치부, 2003~2007정책백서, 2008.

22) 1) 통계청(2003), 「2002년 주민등록인구통계」.

2) 통계청(2002),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3) 정경희(1998), 「199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선우덕(2001), 「노인장기요양보호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노인경제활동참가율과 장기요양비율은 도농혼합지역의 자료가 없어 제시되지 않음.

-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시는 81.3%(61개/75개), 군은 100%(86개/86개), 자치구 87%(60개/69개)로 지역별 재정자립도 격차가 큼.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임.

• • 지역별 재정자립도 현황 • •

구분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평균	53.6	88.7	62.2	35.5	26.3	39.5	16.6	37.5
최고 (단체명)	-	88.7 (서울)	67.7 (인천)	65.5 (경기)	26.3 (제주)	71.7 (경기성남)	49.6 (울산울주)	90.5 (서울서초)
최저 (단체명)	-	-	50.1 (광주)	10.6 (전남)	-	11.1 (전남나주)	7.4 (경북봉화)	13.5 (부산서구)

* 전국 최고 90.5%(서울 서초), 최저 7.4%(경북봉화군)

※ 자료 : 행정자치부, 2003~2007정책백서, 2008.

다. 복지서비스 공급 주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부재

-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유형을 살펴보면 노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등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각종 복지시설 및 지역사회 봉사단체 등으로부터 제각각 제공받고 있음.
- 2007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365천명이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398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186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57,77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408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19개 등 총 59,121개의 노인복지 시설이 운영하고 있음.

• • 연도별 노인 복지시설 현황 • •

(단위 : 개소, 명)

종 류	시 설	2007		2006		2005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 인 주 거 복지시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 로 시 설 (무 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 비 양 로 시 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 료 양 로 시 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 비 노 인 복 지 주 택						
	유 료 노 인 복 지 주 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 인 의 료 복지시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 인 요 양 시 설 (무 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 비 노 인 요 양 시 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 료 노 인 요 양 시 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 인 전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 인 전 문 병 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 인 여 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 인 복 지 회 관	211		183		163	
	경 로 당	56,480		55,504		53,616	
	노 인 교 실	1,082		1,099		1,002	
	노 인 휴 양 소	4		3		4	
재 가 노 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 정 봉 사 원 파 견 시 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 정 봉 사 원 교 육 시 설			4	903	3	
	주 간 보 호 시 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 기 보 호 시 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 인 보 호 전문기관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19		19		17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노인복지시설현황, 2008.3

-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기반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89.4%의 기초자치단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비하여 농·어촌 지역은 25.6%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도·농 혼합지역은 중간수준을 보이고 있음.
- 농·어촌 지역 노인의 거동상태가 낮으며 가족부양능력이 낮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율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장기요양정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 재가노인복지시설과는 달리 장기입소시설 설치율은 도·농 혼합지역이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보다 약 1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들은 욕구에 상응하는 지역노인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 지역유형별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시설 현황 • •

(단위 : %)

지역별 시설별	재가시설	장기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도시	89.4	59.6	73.4	100	88.3
도·농혼합	50	76	32	100	80
농·어촌	25.6	58.9	25.6	100	67.8

* 설치율은 각 노인복지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임.

※ 자료 : 정경희, 지역별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2004.

- 현재 이들 시설을 통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들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이외에 자활후견기관 및 노인인력지원기관(시니어 클럽)에서 재가복지사업을 하는 곳이 있으며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도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공급기관이 다양할수록 서비스 수혜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서비스 주체간의 연계·협조 부족에 따라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고 있거나 특정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 독거노인에 대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별기관별로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서비스 대상 노인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관리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한번의 신청으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행정체계를 살펴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노인복지회관은 지자체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반면, 주간(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복지센터는 지자체 사회과, 자활·공공근로는 보건복지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노동부를 통해 자치구로 연결되는 행정체계를 따르고 있는 등 분산됨으로 해서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시설 간 연계·협조가 안 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라. 최저생계비 지원 부족²³⁾

-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액은 26만6천원으로 전체 노인의 월평균 소득액 48만원 6천원의 절반수준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액 수준은 더 낮음.
- 주1회 이상 식사를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 비율이 20%, 주5회 이상 결식하는 노인도 12.5%나 되어 독거노인의 영양상태 문제도 심각함.
- 이렇듯 독거노인의 경제적 수준 및 영양상태 문제가 심각함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독거노인은 약44%²⁴⁾에 불과해 독거노인의 최저생계비 부족 문제가 심각함.
-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는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경제적 소외계층으로 일반노인이나 차상위계층 노인은 거의 서비스를 못 받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이 32.3% 수준인데 반해 독거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6%에 그치고 있어 노인일자리 확대 및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생계비가 확보되도록 해야 함.

마. 복지서비스 인력 부족

-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요보호 독거노인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23)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2008.3.

24)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냉·난방 실태조사 결과, 2008. 7.

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및 사회종합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 수준은 동결 또는 감소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지원 및 관리체계의 분산에 따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정부로부터 시설운영비 및 유급봉사원 인건비를 지원받아 유·무급 봉사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노인종합복지관 등은 별도의 사업비 지원 없이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의 지속성, 책임성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서비스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음.

□ 확대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 현황 ● ●

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07. 12.31 주민등록 인구기준)	합 계				무 료 시 설															
						소 계				무 료 양 료				무료노인요양				무료노인전문요양			
		시 설 수	입소인원		종 사 자 수	시 설 수	입소인원		종 사 자 수	시 설 수	입소인원		종 사 자 수	시 설 수	입소인원		종 사 자 수	시 설 수	입소인원		종 사 자 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4,861,476	1,584	77,985	59,843	25,901	622	34,818	29,006	13,184	147	5,643	4,454	1,114	202	12,540	10,672	3,931	273	16,635	13,880	8,139
서울	844,839	97	6,470	4,874	2,483	39	2,588	2,376	1,116	11	413	331	99	11	873	799	298	17	1,302	1,246	719
부산	345,492	53	4,254	3,284	1,300	31	2,556	2,156	950	4	369	255	53	13	1,029	974	351	14	1,158	927	546
대구	220,980	34	2,231	2,042	1,057	24	1,560	1,365	637	5	345	274	62	7	428	376	149	12	787	715	426
인천	204,880	73	3,902	2,923	1,362	24	1,447	1,154	543	9	317	207	47	7	500	379	164	8	630	568	332
광주	113,823	35	1,647	1,198	634	24	1,134	805	362	2	144	105	21	12	637	527	193	10	353	173	148

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07. 12.31 주민등록 인구기준)	합 계				무 료 시 설															
						소 계				무 료 양 로				무료노인요양				무료노인전문요양			
		시 설 수	입소인원		종 사 자 수	시 설 수	입소인원		종 사 자 수	시 설 수	입소인원		종 사 자 수	시 설 수	입소인원		종 사 자 수	시 설 수	입소인원		종 사 자 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대전	113,994	33	1,508	1,367	610	12	848	817	367	3	74	70	19	2	186	182	63	7	588	565	285
울산	66,173	29	1,327	777	434	19	893	585	355	1	40	30	9	3	183	153	66	15	670	402	280
경기	871,191	437	20,323	15,115	5,754	104	4,953	4,076	1,751	41	1,148	936	244	25	1,685	1,411	483	38	2,120	1,729	1,024
강원	202,198	108	4,549	3,398	1,483	55	2,524	2,067	981	12	283	231	62	19	872	710	260	24	1,369	1,126	659
충북	186,223	103	3,658	2,970	1,299	46	2,085	1,836	725	15	337	296	68	15	969	862	257	16	779	678	400
충남	285,562	97	3,712	2,669	1,070	25	1,534	1,151	493	7	252	138	34	12	847	624	238	6	435	389	221
전북	266,672	133	6,108	4,751	1,906	55	3,215	2,607	1,131	8	479	401	102	23	1,195	1,019	377	24	1,541	1,187	652
전남	332,516	103	4,628	3,800	1,545	45	2,377	1,963	869	13	679	533	129	11	472	365	143	21	1,226	1,065	597
경북	390,588	118	5,881	4,745	2,119	54	3,057	2,622	1,263	8	392	322	83	18	1,048	928	361	28	1,617	1,372	819
경남	354,611	102	6,205	4,558	2,150	47	3,062	2,536	1,190	6	281	248	59	17	1,211	1,031	392	24	1,570	1,257	739
제주	61,734	29	1,582	1,372	695	18	985	890	451	2	90	77	23	7	405	332	136	9	490	481	292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노인복지시설현황, 2008.3

2. 조손가족 지원 정책 및 문제점²⁵⁾

가. 조손가족 지원 정책 및 사업²⁶⁾

- 2007.10.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08.1.시행)하면서 조손가족을 한부모가족에 포함하여 지원하게 됨. '07년까지는 조손가족이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지원예산이 없었음.
- 조손가족은 현재 자치단체에서 가정위탁가정으로 선정(아동)하여 지원되 손자녀는 별도가구 인정 특례에 의거 세대 분리하여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하고 있음.

(1) 아동양육비 및 고교생 학비 지원(가족지원과)

- 대상 : 조부 또는 조모가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의 조손가족 선정기준(최저생계비 100~130%)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 만8세 미만 아동 : 양육비 월 5만원 지원
 - 고교생 : 입학금, 수업료 지원
- 관련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및 한부모가족복지사업안내

(2) 아동보육료 지원(보육재정과)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 지원 : 보육료 전액 지원

25)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여성부, 2007. 재정리

26) 보건복지가족부, 2008.6.

- 관련근거 : 보육사업안내지침

(3) 기초생활수급 생계비 지원(기초생활보장과)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 : 생계비 지급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이 경우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규정에 따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가구중 그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가구원
- (외)손자녀 또는 (외)조부모가 동 규정에 의하여 별도가구 특례로 인정

(4) 아동양육보조금 등 지원(아동청소년복지과)

- 대상 :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조부모가 18세 미만
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으로 분류
하여 지원
- 지원
 - 양육보조금 “ 위탁아동 1인당 월 7만 원 이상(지방이양)
 - 상해보험료 지원 : 1인당 연 10만 원이내(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
 -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 (대출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0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이하로서 무주택인 위탁가정
 - 별도가구 보장(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
탁보호 아동
- 관련근거 : 아동복지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5) 손자녀들의 학교생활 및 정서지원(가족지원과)

- 손자녀의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학습도우미 파견
- 손자녀들의 생활케어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

나. 조손가족 지원근거 법령의 부재

- 2007년 10월 17일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조손가족으로서 법적인 지원이 보장된 가족은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를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로 규정되었음.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특례 조항으로 규정되어 지원 받게 된 것임.
-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던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같은 법령 하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손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들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책 수행이 가능하지만,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양육 책임자인 조부모들은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자활의 가능성도 없는 노약자라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지원은 자립 혹은 자립 능력 배양이 아니라 보호를 전제로 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이 보다 우선시되어야 함.
- 대상가구 선정에 있어서도 부모와 교류가 있고, 부모가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특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에서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미혼모나 미혼부 및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추가 복지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일반 저소득 한부모가족보다 미혼모·부 등이 아동을 양육하기가 더욱 어려운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급여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이나 조손가족도 생계와 손자녀 양육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도 지원 대상을 미혼모·부, 미혼모·부의 직계존속으로 제한하여 차상위계층의 조손가족을 제외한 것은 문제임.

다. 최저생계비 지원 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빈곤상태를 벗어나기 미흡함. 이는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이 OECD나 세계은행 및 유럽의 선진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선에 의한 산출이 아니라, 전물량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절대적 빈곤의 탈피에 주력하고 있을 뿐, 삶의 질을 국민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데 역부족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최저생계비 이하를 버는 자로서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 등의 항목이 있음.
- 최저생계비는 의료비나 교육비 및 타법 지원액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며,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의료비나 교육비 및 타법 지원액과 수급자 자신의 인정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의 총합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빈곤가구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조손가족이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음.
- 조손가족은 기본적으로 단기간의 경제적 자립은 불가능한 가족임. 주 양육자인 조부모는 더욱 노령화되어 경제능력을 상실해가고, 그들이 양육하는 손자녀들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아직도 상당기간 보호되어야 하는 아동이거나 청소년이므로 가족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취지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라. 기초노령연금 지원 미흡

- 우리나라는 1997년 8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노인복지법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경로연금과 보건·복지 및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조손가족의 가구주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 전체 90%를 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부분 노인복지법의 대상자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법의 취지가 65세 이상 노인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조손가족 가구주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조손가족의 양육 책임자로서의 노인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어 조손가족에 대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조손가족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현금지원책의 하나로 경로연금의 지급을 들 수 있음. 경로연금은 폐지되고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됨.²⁷⁾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한 인정소득액을 산출하고, 이 산출액이 기초노령연금의 선정 기준액과 같거나 그 이하인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선정 기준 액은 노인 1인일 경우 40만 원이며, 노인부부인 경우에는 63만 원임. 즉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인정소득이 월 40만 원 이하일 경우 매월 84,000원을 받게 되고, 노인부부이며 인정소득이 월 6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0,000원을 받음.

27) 경로연금은 2007년 12월말까지 시행되며, 2008년 1월부터는 새로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됨. 정부는 2008년부터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가족지원제도라기 보다는 개인지원제도이므로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던 노인 가족에게 갑자기 떠맡겨진 손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지 못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조손가족이 될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마. 조손가족 지원 프로그램 미흡

-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각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되고 있음. 특히 이 법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이나 부부갈등으로 인한 위기가족 등 가족문제 전반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족해체의 위기를 막아보려는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음.
- 서울 도봉구와 충남 천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가정방문 및 손자녀 학습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조손가족의 다양한 문제들을 전담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천안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건강한 관계맺음을 위한 프로그램과 가족으로서의 친밀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조손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 상담이

나 가족봉사단 파견 등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과의 교류를 유도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일률적인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조손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보다 많은 조손가족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조손가족 문제를 위한 전문기관이라기 보다는 가족해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있어 조손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참여 가족에 대해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고 마는 경향이 있음.

● ● 건강가정지원센터별 조손가족 지원 프로그램 ● ●

지 역	센터명	주요참여대상			프로그램 명	일 정	장 소	참가자(명)			실시 횟수
		성 별	대 상	특성				계	남	여	
서울	구로구	3	8	저소득소외가족-한부모, 조손,소년소녀가장세대 가족의 자녀	1월 멘토링	1월중	센터 및 멘티의 가정	26	54	27	27
서울	구로구	3	8	저소득소외가족-한부모, 조손,소년소녀가장세대 가족의 자녀	1월 멘토링	1월중	센터 및 멘티의 가정	54	27	27	26
서울	구로구	3	8	저소득소외가족-한부모, 조손,소년소녀가장세대 가족의 자녀	2월 멘토링	2월중	센터 및 멘티의 가정	70	35	35	33
서울	구로구	3	8	저소득소외가족-한부모, 조손,소년소녀가장세대 가족의 자녀	3월 멘토링	3월중	센터 및 멘티의 가정	128	64	64	64
서울	도봉구	3	8	조손	조손가정집 단상담	2008. 3.7~4.25 매주 금 /17시~18 시	도봉서원 복지관	22	0	22	4
서울	도봉구	3	8	조손	조손가정집	2008.	도봉서원	22	0	22	4

지 역	센터명	주요참여대상			프로그램 명	일 정	장 소	참가자(명)			실시 횟수
		성 별	대 상	특성				계	남	여	
					단상담	3.7~4.25 매주 금 /17시~18 시	복지관				
서울	영등포 구	3	7	조손-조손가정아동,가족 봉사단	조손가정아 동- 가족봉사단 멘토활동	2월23일, 3월 22일	신길종합 사회복지관, 영등포롯데시네 마	60	27	33	-
서울	영등포 구	3	7	조손-조손가정아동,가족 봉사단	조손가정아 동- 가족봉사단 멘토활동	2월23일, 3월 22일	신길종합 사회복지관, 영등포롯데시네 마	60	27	33	-
서울	영등포 구	3	7	가족봉사단 멘토활동 - 조손가정	가족봉사단 활동 - 세발자전 거의 아름 다운 세상 만들기	1월-3월	신길종합 사회복지관, 영등포롯데시네 마	71	29	42	-
서울	종로구	3	7	한부모, 저소득, 조손 가정	문화연대	01월 07일 01월 23일 01월 24일 03월 11일 03월 18일 03월 22일	서울중요무형문 화재전수회관, 대명 비발디파 크, 국립극장, 창조 콘서트홀	88	40	48	6
경기	가평군	3	8	조손	어려운가정 돌보미 선 발 및 대상 자 선정	2월 ~3월			10	10	10
경기	고양시	3	3	결혼이민자, 조손-아동	학습지원	1월~3월		31	16	14	-
경기	고양시	3	7	조손-가정	조손결연	1월~3월		46	23	23	-
경기	광명시	3	7	어려운가정 (한부모, 조손, 결혼이민 자)	어려운가정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3월	대상자 가정	224	82	142	-
경기	군포시	3	3	한부모, 조손가족, 저소득	저소득자녀 공부방	1.8-31	2층 프로그램실	85	40	48	1
경기	군포시	3	3	한부모, 조손가족, 저소득	저소득자녀 공부방	2.12-28	2층 프로그램실	47	10	37	1
경기	군포시	3	7	한부모, 조손가족, 저소득	어려운가정 돌봄 서비 스	3.12-31	각 해당 가정	92			1
충남	당진군	3	7	한부모 조손 결혼이민자	사례관리	2008-03-31	수혜자 가 정	20	9	11	7
충남	천안시	2	8	조손-조부모	사례관리자 가정방문	1월-2월	대상가정	20	10	10	20

지 역	센터명	주요참여대상			프로그램 명	일 정	장 소	참가자(명)			실시 횟수
		성 별	대 상	특성				계	남	여	
충남	천안시	3	3	조손-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	1월-2월	대상가정	8	8		8
충남	천안시	2	3	조손-조부모,아동	사례관리자 가정방문	3월	대상가정	35	13	23	9

※ 자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8.

3.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및 문제점²⁸⁾

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및 사업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등 임.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예산 • •

(단위:명,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54,464	29,298	59,120	32,478	74,221	40,656
고교생 학비	23,034	15,742	29,429	19,732	35,867	23,827
아동양육비	31,430	13,556	29,691	12,746	38,354	16,829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6.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교육비 지원

○ 필요성

- 최근 이혼, 별거 등과 같은 가족환경의 변화로 한부모 가족의 급속한 증가 및 경제침체로 인한 아동양육비 대상자 급증
-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및 고교생 학비 지원 필요

○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8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 고교생 학비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 전액 지원

28)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여성부, 2006. 재정리.

•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 · 교육비 지원 • •

(단위 : 천원)

시도별	2006			2007			2008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계	40,692,379	29,298,303	11,394,076	44,908,333	32,477,791	12,430,542	56,150,123	40,656,332	15,493,791
서울	10,851,992	5,425,996	5,425,996	11,496,250	5,748,125	5,748,125	14,212,556	7,106,278	7,106,278
부산	3,282,500	2,626,000	656,500	3,645,714	2,916,571	729,143	4,601,591	3,681,273	920,318
대구	2,031,233	1,624,986	406,247	2,346,986	1,877,589	469,397	2,716,325	2,173,060	543,265
인천	3,127,751	2,502,201	625,550	3,314,676	2,651,741	662,935	3,879,285	3,103,428	775,857
광주	1,658,306	1,326,645	331,661	1,757,786	1,406,229	351,557	2,319,18	1,855,345	463,836
대전	1,391,025	1,112,820	278,205	1,371,575	1,097,260	274,315	1,712,833	1,370,266	342,567
울산	646,999	517,599	129,400	881,196	704,957	176,239	1,069,671	855,737	213,934
경기	7,781,218	6,224,974	1,556,244	9,823,139	7,858,511	1,964,628	11,553,915	9,243,132	2,310,783
강원	934,699	747,759	186,940	908,415	726,732	181,683	1,277,766	1,022,213	255,553
충북	1,195,412	956,329	239,083	1,092,139	873,711	218,428	1,443,601	1,154,881	288,720
충남	1,070,894	856,715	214,179	1,104,134	883,307	220,827	1,514,141	1,211,313	302,828
전북	1,024,930	819,944	204,986	1,269,211	1,015,369	253,842	1,671,306	1,337,045	334,261
전남	1,277,385	1,021,908	255,477	1,389,104	1,111,283	277,821	1,928,224	1,542,579	385,645
경북	1,079,874	863,899	215,975	996,093	796,874	199,219	1,473,350	1,178,680	294,670
경남	2,446,586	1,957,268	489,318	2,679,299	2,143,439	535,860	3,621,604	2,897,283	724,321
제주	891,575	713,260	178,315	832,616	666,093	166,523	1,154,774	923,819	230,955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8.

(2)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자립 기반 조성

○ 사업내용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 대출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타 기관과의 중복용자 불가)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20억 원)
-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 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등에 대한 시설 입소 지원으로 보호 대상자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 입소대상 및 기능 • •

시설종류	입소대상	지원내용	보호기간 (연장기간)
모자보호시설 (41개소)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 (2년)
부자보호시설 (1개소)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 (2년)
모자자립시설 (4개소)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및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이 미흡한 세대	주택편의 제공 및 자립지원	3년 (2년)
모자일시 보호시설 (14개소)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 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숙식, 의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 담 등	6월 (3월)
미혼모자시설 (25개소)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일정기간 아동의 양 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 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분만 의료 지원, 인성교육 및 상 담, 자립지원	1년 (6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5개소)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 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양육교육	1년 (1년)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6.

○ 노후 시설에 대한 신축,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실시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도별 교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시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합계	7,694	3,847	3,847	6,966	3,483	3,449	6,606	3,303	3,303
서울	2,148	1,074	1,074	80	40	40	1,880	940	940
부산	78	39	39	138	69	69	110	55	55

시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대구	456	228	228	704	352	352	38	19	19
인천	356	178	178	1,902	951	951	20	10	10
광주	1,334	667	667	4	2	2	28	14	14
대전	32	16	16	0	0	0	0	0	0
울산	360	180	180	388	194	194	6	3	3
경기	492	246	246	296	148	148	864	432	432
강원	714	357	357	0	0	0	18	9	9
충북	124	62	62	854	427	427	980	490	490
충남	68	34	34	0	0	0	1,432	716	716
전북	1,340	670	670	0	0	0	52	26	26
전남	0	0	0	20	10	10	286	143	143
경북	28	14	14	1,224	612	612	142	71	71
경남	66	33	33	1,228	614	614	714	357	357
제주	98	49	49	128	64	30	36	18	18

※ '08년도 전체예산은 3,483백만원이며, 예산중 180백만원은 태풍피해 발생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부
보류하였음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8.

(4)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사례관리사업)

○ 필요성

- 한부모가족의 사례관리를 자립능력 향상 및 자활·자립 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센터 1개소 당 상시 사례관리대상 50~60가구
- 사업추진 방향
 - 강점관점에 입각한 개별 사례관리
 - 문제해결 및 자활능력 강화
 -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의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대상 확대에 따른 적극적 사업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한 간접서비스 제공능력 강화
 - 한부모가족의 자활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 서비스 조정
 - 지역통합 사례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적극적 네트워크 추진

(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 필요성

-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 보호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무료법률 지원

○ 사업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나. 보호대상 선정의 문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임. 자녀 중 한명이 18세 이상이 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 이혼한 부부 중 58.6%인 73천 쌍이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음. 미성년 자녀 “2명 있음”은 전체 이혼의 28.3%로 “1명 있음”의 25.9%보다 2.3%p(2.9천 건) 높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한명이라도 18세 이상이 되면 다른 자녀가 아직 18세 미만이라고 해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음. 즉,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없으며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학자금도 지원이 중단됨.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기회도 상실됨.

• •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 •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천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91.2	116.7	118.0	120.0	135.0	145.3	167.1	139.4	128.5	125.0	124.6
자녀 있음	65.3	83.8	84.1	84.4	94.9	101.4	114.3	91.3	81.4	75.9	73.0
1명	29.2	37.0	37.7	38.1	42.2	43.7	47.8	39.1	35.0	33.5	32.3
2명	31.4	41.4	41.2	41.1	46.7	50.8	58.3	45.6	40.3	37.0	35.2
3명 이상	4.6	5.5	5.2	5.3	6.0	6.9	8.1	6.6	6.0	5.5	5.4
자녀 없음	25.9	32.9	33.9	33.7	37.7	41.9	49.4	46.6	45.6	48.5	51.2
구 성 비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 있음	71.6	71.8	71.2	70.4	70.3	69.7	68.4	65.5	63.3	60.7	58.6
1명	32.1	31.7	31.9	31.8	31.3	30.0	28.6	28.1	27.3	26.8	25.9
2명	34.4	35.5	34.9	34.2	34.6	35.0	34.9	32.7	31.4	29.6	28.3
3명 이상	5.1	4.7	4.4	4.4	4.5	4.7	4.8	4.7	4.7	4.4	4.4
자녀 없음	28.4	28.2	28.8	28.1	27.9	28.8	29.6	33.4	35.5	38.8	41.1

* 미상 포함

※ 자료 : 통계청, 2007 이혼통계 결과, 2008. 4.

다. 모자보호시설의 문제

- 이혼가정 부모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자보호시설에 입주하기를 희망하지만 시설부족의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모·부자보호시설은 2007년 말 현재 모자보호시설(41개소, 1,084세대), 모자자립시설(4개소, 62세대), 부자보호시설(1개소, 20세대) 임. 이러한 시설 수는 우리나라 모·부자가정 가구가 1,420,790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 모자 · 부자 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07) • •

구분	모자보호	정원(세대)	부자보호	정원(세대)	모자자립	정원(명)
계	41	1,084	1	20	4	62

※ 자료 : 200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2008.

- 모자보호시설의 가구당 규모는 방 1칸이 대부분이어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한방에서 모와 청소년기 남·여 자녀들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공부방도 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학습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미흡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되면 정부는 만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5만원과 고등학교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양육비 5만원은 아동양육과 균형 있는 영양공급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 또한 자녀학비도 실질적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음.
-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업기반을 조성하고 조기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자금을 대여하고 있음.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율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45.8%, 2006년 49.5%, 2007년 66.5%로 증가하는 것 같지만 용자추천세대수 대비 대여율로 최초 신청자 수 대비 용자건수로 보면 대여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임.
- 예산부족으로 신청자에 비해 대여율이 낮고, 복지자금 대여금액인 가구별 최대 2,000만원은 창업을 하기에 불충분한 액수임. 또한 대여 후 사업지도 및 상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공적인 자립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현황 • •

	2005	2006	2007	2008
예산	20억	20억	20억	20억
융자추천 세대수	312	279	200	
융자건수	143	138	133	99(6월말 현재)
대여율(%)	45.8	49.5	66.5	

*2005~2007년까지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대출, 2008년부터 사업자금으로만 대출 실시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마. 여성한부모의 고용불안정 문제

- 부모가족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성한부모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취업경력을 가지지 못했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 단순직종, 영세 사업장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 한부모가구주가 된 이후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 등에서 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됨.²⁹⁾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별도의 복지대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29) 장혜경,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2001.

4. 소년소녀가족 지원정책 및 문제점

가. 소년소녀가족 지원 정책 및 사업

- 소년소녀가족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1인당 월 7만 원이상의 부가급여(지방이양),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등 임.
- 소년소녀가족 지원 예산을 보면 2003년 48억5천만 원, 2004년 39억5천만 원,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 되었음.

• • 소년소녀가정 연도별 예산 •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계속
예산액(국고)	4,853	3,952	지방이양
지원단가	65천원/인,월	70천원/인,월	70천원/인,월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6.

- 소년소녀가정의 지원정책은 아동단독세대는 보호자가 없어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추진 하고 있음.
- 가족위탁보호사업은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가족위탁보호사업의 연혁을 보면 1990년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2000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2000년~2002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시도, 17개소), 2004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 가족위탁보호사업 개요 • •

□ 요 건

- 대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대상가정 유형
 - 대리양육: 친(외)조부모에 의한 가정위탁
 - 친·인척가정위탁: 친(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위탁가정 선정기준
 -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 ※ 위탁양육 부모교육시에는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절차,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이나 위탁가정의 경우 교육이수 대상자가 노령,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월 70천원 이상(지방이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교육급여 등 지원
-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은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0만원이내/인, 년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4~7천만원)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0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 정서적 후원

- 후견인 지정: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 결연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결연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 후원자와의 만남행사 등 후원프로그램 활성화

□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

- 가정위탁지원센터 체계

- 조직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 주요기능 : 위탁가정 발굴, 위탁부모 교육 및 상담, 위탁보호과정에서의 관리(아동·위탁부모·친부모방문·상담 등), 가정위탁 보호사업 홍보, 홈페이지 작성·운영 등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6.

나. 기초 생계비 부족의 문제³⁰⁾

- 소년소녀가장가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초 생계비 부족이라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임. 경제적 빈곤의 원인은 가정에 근로자가 없고 아동이 성장할 때까지 장기간이 걸리므로 즉각적인 자활이 이루어지기도 힘들기 때문임. 따라서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더 많이 요구됨.

- 한국여성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족의 평균소득은 월 38만3천원으로 이는 2007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734,412원의 약 52%에 그치는 수준임.

- 또한 정부지원과 민간의 결연후원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생활이 충족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지원비가 ‘매우 충분하다’와 ‘충분하다’는 경우가 6.6%에

30)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불과하고 ‘부족하다’와 ‘매우 부족하다’가 75.5%에 달하여 많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소득충분정도 • •

충분정도	소년소녀만	친척과 동거	계
매우 부족하다	13(24.5)	23(43.4)	36(34.0)
부족하다	27(50.9)	17(32.1)	44(41.5)
별지장 없다	10(18.9)	9(17.0)	19(17.9)
충분하다	2(3.8)	4(7.5)	6(5.7)
매우 충분하다	1(1.9)	-	1(0.9)
계	53(100.0)	53(100.0)	106(100.0)

※ 자료 :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 소년소녀가구의 경제적 지원은 주로 후원이나 결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움.
- 경제적 지원을 대부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원이 끊기는 것도 문제임. 이는 이들이 대학 진학을 어렵게 만들고 안정적 직업을 가질 기회가 줄어들어 경제적 안정을 도모가 어려워 빈곤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음.

다. 교육문제 및 상담문제³¹⁾

- 소년소녀가장 및 구성원들의 교육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가족의 정서적 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들이 스트레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상처 등 심리적 문제는 청소년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

3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 소년소녀가장 아동의 재학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이 1,226명(49%)로 제일 많고, 중학교 재학 789명(31.5%), 초등학교 재학 401명(16%) 순으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 소년소녀가장가정 아동 재학현황 ● ●

(단위 : 명)

연도	미취학자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미재학자
2000	121	1,862	3,217	4,041		338
2001	133	1,640	2,611	3,414		262
2002	115	1,478	2,232	2,936		186
2003	99	1,309	1,966	2,668		142
2004	87	1,244	1,681	2,331	3	98
2005	85	901	1,343	1,923	3	77
2006	39	572	1,031	1,570	2	57
2007	25	401	789	1,226	3	57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 소년소녀가장의 15세에서 18세 사이 아동 중 9.6%가 미취학,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나 휴학 등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학교과정을 다니지 못하는 경우였고, 전체 소년소녀가장 중 2.3%만이 전문대 이상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 소년소녀가장의 학습부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는 보호자가 없는 데다 가사일 등 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임.

32)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생활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2000.5.

- 소년소녀가장의 아동이 앞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등교육을 마쳐야 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진학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임.

- 사회지도자, 종교인 및 사회복지전문가 등이 아동보호자인 친·인척 및 후견인을 상담 및 지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성인의 보호하에 학교진학 및 직업지도 등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5. 미혼모가족 지원정책 및 문제점³³⁾

가. 미혼모가족 지원 정책 및 사업

□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 한부모가족(부자, 모자, 미혼모부자, 조손) 예산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음.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예산 - 고교생학비 및 아동양육비 •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54,464	29,298	59,120	32,478	74,221	40,656
고교생 학비	23,034	15,742	29,429	19,732	35,867	23,827
아동양육비	31,430	13,556	29,691	12,746	38,354	16,829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6.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2007년 325백만원(133건), 2008년 325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음.

(1)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 등 미혼모가족 지원 정책 현황

- 아동양육비등은 한부모가족으로 포함하여 지원
 - 아동양육비 ·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사례관리사업)
 - 사례관리를 통하여 자립능력 향상 및 자활·자립 기반 조성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33)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2005. 12. 재정리.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2) 미혼모시설 지원

- 신축, 노후 시설에 대한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
- 시설 현황

● ● 미혼모 시설현황 ● ●

시설종류	입소대상	지원내용	보호기간 (연장기간)
미혼모자시설 (25개소)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분만 의료 지원, 인성교육 및 상담, 자립지원	1년 (6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5개소)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양육교육	1년 (1년)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6.

나.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 부족

- 미혼모 복지정책은 임신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물론 양육미혼모나 미혼부를 위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임. 특히 양육미혼모나 미혼부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거의 전무함.
- 대다수 미혼모 시설은 임신과 분만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어 산후도우미나 영아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정부 예산이 협소하여 양육미혼모를 위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미혼모보호시설 입소자는 의료보호대상자로서 특수 치료비가 추가 지급되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미혼모가 많아 조산 등 이상분만, 초음파 검사 등 의료 보호 비적용 분야의 의료비 지출이 많아 부담이 되고 있음.
- 출산전후의 여성과 아이를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24시간 응급상황 대처가 필요하나, 현재 간호사 1인이 주간에만 근무하므로 야간의 응급 시 대처할 보호 능력이 부족함.

다. 주거문제

- 미혼모가족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문제임. 경제적 문제 중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주택문제임. 그러나 미혼모 시설 퇴소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자자립시설이나 임대주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를 지원하는 유일한 제도임.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미혼모 보호시설 퇴소자의 3.5%만 이용 가능함.

•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현황 •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혼모자	15	2	1	1	1	1	-	1	3	1	-	1	-	1	-	1	1
정원(명)	174	38	10	10	10	10	-	10	36	10	-	10	-	10	-	10	10

※ 자료 : 200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2008.

- 미혼모의 자녀가 대부분 해외로 입양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에게 일정기간 생활할 수 있는 시설확충의 지원이 필요함.

라. 미혼모의 재교육 및 취업 지원 미흡

- 미혼모의 연령을 보면 20세 이하인 미성년자가 35.5%, 21~25세 미혼모가 33%로 학령기 동안의 임신이 68.5%에 달하여 이들의 학업지속과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 시설입소 미혼모 연령별 현황(최근5년간) • •

연도별	계(명)	15세 이하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2003	1,835	52	2.8	827	4.5	686	37.4	168	9.2	82	4.5	20	1.1
2004	1,791	24	1.3	795	44.4	641	35.8	218	12.2	86	4.8	27	1.5
2005	1,970	37	1.9	758	38.5	740	37.6	261	13.2	107	5.4	67	3.4
2006	1,985	69	3.5	731	36.8	694	35	280	14.1	132	6.6	79	4
2007	2,161	74	3.4	694	32.1	713	33	377	17.5	210	9.7	93	4.3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실태조사(08.4)’에 의하면 미혼모 63명 중 71.4%가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나 학업을 중단한 미혼모의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세대 당 697,000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되는 통합운영비로 생계비는 물론 직업훈련비, 의료비, 아동양육비 및 탁아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기관에 따라 미혼모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이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등을 전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양육미혼모들에게 단순히 주거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응, 자립,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시설이므로 출산 후 미혼모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마. 미혼모 예방정책 부재

-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2005년 4.8%에서 2006년 5.1%로 증가하고 있음.

• • 성관계 경험률 • •

(단위 : %)

연도	전체	남	여
2005년	4.8	6.0	3.5
2006년	5.1	6.7	3.4

※ 자료 : 2006청소년건강행태, 질병관리본부, 2007.7.

- 2003년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에서 초·중·고등학생 및 비행청소년 2천3백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가 성관계 경험률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음.
- 청소년의 성경험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미숙 외(2004)³⁴⁾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42%, 고등학교의 57%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교육프로그램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았음.
-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6월 현재 전국 1만983개 초·중·고교의 성교육 담당교사 11,083명 중 성교육 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4,267명(38.5%)임.

34) 유미숙 외,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04.

• •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2007.6기준) • •

급별	학교수 (개)	성교육담당 교사수(명)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자수(명)		
			6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없음
초	5,752	5,797	2,629	1,023	2,145
중	3,046	3,054	1,195	615	1,244
고	2,185	2,232	960	394	878
계	10,983	11,083	4,784	2,032	4,267

*주1: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 여부 '없음'은 30시간 미만.

*주2: 성교육 담당교사 전공과목은 보건, 체육/교련, 가정, 초등, 기타.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8.

□ 성교육을 담당할 교사와 학교의 지원 부족으로 성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실질적 피임예방법 등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소외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IV

해외 정책 사례



1. 미 국

가. 독거노인 지원 정책³⁵⁾

□ <미국 플로리다 주의 독거노인 서비스 프로그램>

- 1970년대부터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남성노인의 19%, 여성노인의 40%에 이릅니다
- 독거노인만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별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전체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 플로리다(Florida) 주의 노인복지서비스 중 독거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가정연료 긴급보조서비스(emergency home energy assistance): 독거노인이나 저소득노인에게 여름철 냉방이나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서비스
 - 노인사고예방 프로그램: 낙상, 화재, 독극물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가정생활 안전을 위한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서비스 프로그램
 - 독거노인 친구 되어주기 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노인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을 위해 교통서비스, 쇼핑, 조리, 친구 되어주기 등의 자원봉사활동
 - 긴급통보지원(emergency alert response): 병약한 독거노인이 위급한 경우 건강센터에 위기상황을 통보하는 긴급정보 프로그램
 - 긴급주택수리: 집의 수리나 개조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원 프로그램
 - 물자지원(material aid):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식품, 의복, 화재경보기, 안경, 보청기, 주택수리 물품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35) 보건복지가족부, 2008.6.

- 가정방문서비스(outreach): 독거노인이나 저소득노인, 소수민족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제공
- 전화확인서비스(telephone reassurance):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위급 상황시 특별 또는 긴급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나. 조손가족(소년소녀가족) 지원정책³⁶⁾

-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음. 이에 우리나라도 UNCRC(UN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게 가장의 책임을 지우는 일종의 학대라고 하여 가정위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음.(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 보고서 녹취록중)
-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소녀를 양육하는 경우 Kinship care 이라고 하여 가정위탁 범주 내에 포함하고 있으며 foster care에서 제공받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사회복지사를 통해 받게 되어 있음.
- 미국은 우리의 경우와 달리 친인척과 대리위탁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Kinship care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친인척 위탁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비용이 적게 들고 (친인척위탁의 경우 일반위탁의 경우보다 지원금이 적음) 일반위탁보다 문제행동을 적게 보인다는 것임. (한국수양부모협회 제 8차 국제가정위탁교육참조)

36) 보건복지가족부, 2008.6.

다. 미혼모가족 지원정책³⁷⁾

-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성교육, 절제 교육, 피임서비스 등을 제공
 - 십대들의 성적 활동 자제 및 십대부모의 입양선택 프로그램에 기금 지원
- 사후 대책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미혼모들을 모자가정으로 책정하여 공적부조 제공
-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상담서비스와 쉼터 제공
 - 주거보호, 입양 또는 양육 선택지원, 상담, 교육, 의료서비스 등
 - 양육이 어려울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아동 양육 위탁
- 모자가정 고용대책 : 공공직업안전소에 여성가장대상 직업상담원이 배치되어 직장생활에 대한 상담과 지원 실시
- 모자복지센터 : 모자가정의 생활과 생업의 지도, 단기의 직업지도 등 각 현의 모자복지대책을 종합추진
- 모자복지상담원 : 모자가정 실정조사, 모의 취업, 아동양육 상담, 지원 등
- 모자생활지원시설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20세 미만의 자녀양육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입소 보호 및 자립 촉진
- 복지대출 (수학자금, 사업자금, 주택자금 등), 연금, 아동부양수당 등 지급
- 공영주택 우선입주 배려 및 민간임대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 • 미국의 빈곤 가구 지원 • •

가구 형태	지원 내용
한 부모 가정	<p>1. TANF³⁸⁾</p> <p>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요보호가족 한시적 지원프로그램)은 한 부모 가정을 포함하여 빈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임.</p> <p>가. 자격: TANF 지원을 받기 시작한 후 2년 이내에 취업을 하여야</p>

37) 보건복지가족부, 2008.6.

가구 형태	지원 내용
	<p>함. 또한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직업 활동에 참여하여야 함(6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0시간).</p> <p>나. 지원 기간: 일생에 걸쳐 총 60개월 이내.</p> <p>다. 주(州) 지원 방식: 총액 교부 방식.</p> <p>라. 지원 내용: TANF 수혜자는 주 정부의 보조금과 근로 참여시 아동 보육을 돕기 위한 아동 보호 보조금, 근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가족 돕기 보조금 등을 지급받으며 자녀 부양 강제제도(Child Support Enforcement)를 실시하여 자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세 환급분 환수, 월급 차압 등의 방법을 통해 부양을 강제함.³⁹⁾</p> <p>마. 관련 법률: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PRWORA),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p> <p>2. EITC⁴⁰⁾</p> <p>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 제도로 자녀의 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됨.</p> <p>가. 자녀 연령: 18세 미만(학생의 경우 23세, 장애인의 경우 연령 불문)</p> <p>나. 자녀 인정 요건: 공식적으로 부양 관계를 가진 자로서 동일한 거주지에 회계연도 중 반 이상을 같이 거주한 자.</p> <p>다. 최대 공제액: \$2,853</p> <p>3. 식권 교부 프로그램(Food Stamps)</p> <p>TANF나 사회보장 소득 보충 프로그램(SSI)에 해당되는 사람은 식권교부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식료품 구매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⁴¹⁾</p> <p>프로그램의 대상은 자산이 \$2,000 이하,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이어야 함.⁴²⁾</p> <p>4. LIHEAP(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p> <p>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또는 주별 중위(median) 소득의 60% 이하 가구에 대해 냉난방비 지원.</p>

가구 형태	지원 내용
	<p>5. Medicaid(메디케이드) 아동, 저소득층 등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메디케이드의 지원 범위는 각 주별로 상이함.⁴³⁾</p>
미혼모 가정	<p>1.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요보호 가족 한시적 지원프로그램) 미혼모 가정 역시 TANF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음. 그러나 미성년자 미혼모의 경우 TANF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 수료, 가정 또는 어른의 감독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생활할 것 등의 조건이 추가됨.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의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함. 미혼모와 관련하여 혼외 출생 감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에 가장 성공적인 주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지원이 차등적으로 지급됨.⁴⁴⁾</p>
독거노인 가정 ⁴⁵⁾	<p>1. 지역 노인 보호 서비스(CCE) - 주간보호, 간병, 상담, 주택수리, 재활치료 등을 제공 2. 가정 연료 긴급 보조 서비스(EHEAEP) -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 서비스 3. 장기 요양 보호 대체 사업(Long-term Care community diversion Project) - 저소득층 노인의 예방 건강, 가정 건강 보호, 의료장비 등을 지원 4.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서비스 5. 노인학대 방지 프로그램 - 가족 및 시설 직원으로부터 학대, 방임, 착취를 당하는 노인을 찾아내고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6. 지역 사회봉사 노인고용 프로그램</p>
소년소녀 가정	<p>1. Independent Living Program 주별로 명칭, 지원 대상,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3-16세 이상의 아동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플로리다의 경우 2002년 Road to Independence Act를 통해 13-15세의 아동에게 자립생활 이전시기 서비스, 15-18세 아동에 대해 생활 유지 기술 서비스, 16-18세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생활 보조 혜택 등을 제공함⁴⁶⁾.</p> <p>2. 메디케이드 아동의 경우에는 입양, 위탁 기관수용, 보호자 지정 등을 통해 보호</p>

가구 형태	지원 내용
	자 및 기관을 정하므로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 이들을 보호하는 가정에서는 이들 아동을 위한 메디케이드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조손가정	<p>1. EITC(근로소득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의 경우 공식적인 부양 관계를 가진 손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가능함.</p> <p>2. 식권 교부 프로그램(Food Stamps) 조손 가정이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빈곤층에 포함될 경우 식권 교부 프로그램 대상이 됨.</p> <p>3. 메디케이드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양쪽 모두 메디케이드의 수혜 대상이 됨.</p>

38) <http://www.acf.hhs.gov/programs/ofa/tanf/index.html>

39)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부 [편]. 2006. 국회 전자도서관 소장

40) <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41) <http://www.fns.usda.gov/fsp/>

42) <http://www.fns.usda.gov/fsp/faqs.htm#2>

43) http://www.cms.hhs.gov/MedicaidEligibility/02_AreYouEligible_.asp#TopOfPage

44) <http://www.nga.org/Files/pdf/000111PREGNANCY.pdf>

45) 독거노인에 관한 정책은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초조사 / 홍미령 ; 고양곤 ; 배성권 [공저]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공편]”(국회 전자도서관 소장) 중에서 중요한 정책만을 요약하였음.

46) <http://www.dcf.state.fl.us/indliving/docs/IndLivingHHF20080108.ppt>

2. 영 국

가. 미혼모가족 지원정책⁴⁷⁾

- 십대 미혼모 비율을 줄이고 미혼모와 그 자녀의 사회배제 문제해결을 위하여 통합된 대책 수립
- 정책 내용
 - 십대임신예방을 위한 잡지, 라디오, 엽서, 포스터 등 캠페인 광고 실시
 - 학교 등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성과 관계를 위한 교육 실시
 - 피임교육 및 상담서비스, 피임 지식 및 정보 제공 미디어 캠페인 등
 - 십대 부모의 교육, 훈련, 고용에의 참여 촉진사업
 - 18세 이하로 부모 혹은 파트너와 함께 살 수 없는 모든 한부모가장에게 호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제공

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⁴⁸⁾

- 아동급여
 - 모든 아동에 대하여 평등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원칙적으로 1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지급되며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는 19세까지 그 대상이 됨
- 미망인급여, 한부모급여
 - 미망인 급여 : 사망한 남편의 아동을 임신 중이거나 인공수정을 한 경우 또는 아동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주당 지불하는 급여로 청구자인 미망인에 대한 급여와 부양아동에 대한 부가급을 지급
 - 한부모급여 : 함께 살고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있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경우에 지급되며, 한부모가족이

47) 보건복지가족부, 2008.6.

48) 보건복지가족부, 2008.6.

빈곤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급여를 인상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주택급여

- 자산조사를 통해 지급되는 자산 16,000파운드 이상의 자에게는 수급자격이 없고 3,000파운드에서 16,000파운드 간의 자산은 250파운드 당 주당 1파운드의 소득으로 계산
- 주택급여는 개인수당과 가산금이 있고 가족구성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

○ 소득지원급여

- 소득지원급여를 아동이 16살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한부모가 가능하면 자녀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고 있음

○ 국민보건서비스

-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무료의료를 보장

○ 근로가족세금공제

- 부양아동이 있는 저임금가족의 소득보충프로그램으로 자산조사를 전제로 조건은 주 16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

- 소득지원을 받고 있거나 소득지원을 신청 중인 한부모들 중에서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한부모들을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4년부터 모든 한부모를 적용대상으로 실시

● ● 영국의 빈곤 가구 지원⁵⁷⁾ ● ●

가구 형태	지원 내용
한 부모 가정	<p>1.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⁴⁹⁾ WFTC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으로서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 그 혜택의 폭이 더 큼.(한 부모 요인에 의한 추가혜택은 £1,770⁵⁰⁾)</p> <p>2. 아동부양비 정수(Child Maintenance)⁵¹⁾ 아동의 양육을 위해 CSA(Child Support Agency)는 아동과 같이</p>

가구 형태	지원 내용
	<p>거주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부양비를 징수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제공함. 전업 학생, 16-19세 학생, 재소자, 요양원 입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부양비를 징수하지 않음.</p> <p>3. 직업 보조금⁵²⁾ 취직 후 다른 혜택 수령을 중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취직 26주 전부터 구직 수당, 소득 지원 등의 직업 관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p>
미혼모 가정	<p>1. Sure Start plus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미혼모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임신, 입양, 낙태 등에 대한 조언과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는 임신 관련 상담과 주택, 의료 보험, 양육 기술, 교육 및 아동 부양 등에 대해 지원하는 부모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⁵³⁾</p>
독거노인 가정 ⁵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 퇴직 국가 연금 2. 제 2 국가 연금 3. 사별 급여 4. 수발 수당 5. 최저소득 보장 수당 6. 사회 기금 보조금 7. NHS에 의한 의료 보장 서비스
소년소녀 가정	<p>1. 아동위탁 보호법 2000년 아동법의 일부가 개정된 아동위탁 보호법⁵⁵⁾은 지방정부에게 아동보호에 있어서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지방 정부는 16세에서 17세 청소년뿐만 아니라 18세에서 21세까지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접촉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교육, 훈련, 경력계획,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청소년 상담가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⁵⁶⁾</p> <p>2. Connexions Connexions는 2001년에 설립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개인 상담가와 연결을 시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서비스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청소년들까지 확대하여 도와주기 위해 설립되었음.</p>

가구 형태	지원 내용
조손가정	조손가정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정책, 법은 없으며 노인에 대한 복지 혜택과 아동에 대한 복지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음.

49) <http://www.hmrc.gov.uk/dmg/index.htm>

50)

http://www.direct.gov.uk/en/MoneyTaxAndBenefits/TaxCreditsandChildBenefit/TaxCredits/DG_073939

51)

http://www.direct.gov.uk/en/MoneyTaxAndBenefits/BenefitsTaxCreditsAndOtherSupport/Expectingorbringingupchildren/DG_10018808

52)

http://www.direct.gov.uk/en/Parents/Moneyandworkentitlements/YourMoney/DG_4003043

53) http://www.everychildmatters.gov.uk/_files/teenpreg.zip

54) 독거노인에 관한 정책은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초조사 / 홍미령 ; 고양곤 ; 배성권 [공저]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공편]”(국회 전자도서관 소장) 중에서 중요한 정책만을 요약하였음.

55) <http://www.everychildmatters.gov.uk/socialcare/childrenincare/leavingcare/>

56)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법제 분석. 2004년 국회 전자도서관 소장

57)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2008.8.

3. 일 본⁵⁸⁾

가. 일본의 소외 가족에 대한 정책 및 입법례

- 독거노인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생활보호대책에 담겨져 있음.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그에 걸맞은 최저생활비에서 수입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임.

1) 생활보호대상자란?

- 생활보호대상자는 자산, 능력 등 전부를 활용해도 생활이 궁핍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종 사회보장시책에 의한 지원, 부동산 등의 자산, 가동능력 등의 활용이 보호실시의 전제가 됨.
-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수급에 이르는 절차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 절차와 직권절차 두 가지가 있음.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대의 실태에 따라 연 2-12회의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수입·자산 등의 신고를 의무화해 정기적으로 과세대장과의 조회를 실시함. 또한 취업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취업지도를 실시함.

2) 생활보호 여부 판정과 지급되는 보호비

- 후생노동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측정되는 최저생활비와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이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보호를 받게 됨. 최저생활비에서 수입을 뺀 차액을 보호비로 지급함.

58)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2008.8.

- 수입이란 취업에 의한 수입, 연금 등 사회보장의 급부, 친족에 의한 원조, 교통사고의 보상 등을 인정함. 수입으로는 상기 외에 예·저금, 보험금, 부동산 등의 자신매각수입 등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사용한 후에 비로소 보호대상이 됨.

3) 생활보호의 대상

- 생활보호에는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및 장례부조로 구성되어 있음. 의료부조 및 개호부조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현물급부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는 금전급부가 원칙임. 각 부조에 의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부조의 기준은 후생노동장관이 설정함.

• • 2008년도 생활부조 기준의 예 • •

	東京都區部等	地方郡部等
표준 3인 세대 (33세, 29세, 4세)	1 6 7 , 1 7 0 円	1 3 0 , 6 8 0 円
고령자독신세대(68세)	8 0 , 8 2 0 円	6 2 , 6 4 0 円
고령자부부세대(68세, 65세)	1 2 1 , 9 4 0 円	9 4 , 5 0 0 円
모자세대(30세, 4세, 2세)	1 6 6 , 1 6 0 円	1 3 2 , 8 8 0 円

4. 일본의 한부모 가정의 현상

- 일본의 한부모 가정은 모자세대가 122만5,400세대, 부자세대가 17만3,800세대 (모두 2003년 11월 1일 현재임)로 되어있음. 국민생활기초조사(2003년 6월 조사)의 전 세대(4580만 세대)와의 비율로 보면 모자세대는 2.7%, 부자세대는 0.4%이다. 연령별로는 20대-30대 후반이 많으며, 모자가정에서는 76만명을 차지하고 있음.

- 한부모 가정의 주요 증가요인은 이혼의 증가임.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의 비율에 대하여는 모자가정 쪽이 많음.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부친과 모친 어느 쪽이 친권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느냐를 보면 1960년에는 부친이 친권자가 되는 비율이 47%로 모친보다도 많았으나 그 후 비율은 역전하여 1996년에는 모친이 친권자가 되는 비율이 78%로 되어있음(1998년판 후생백서 참조).
-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한 행정지원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모자가정이 절대수가 많고 취업상태나 수입 등 경제상태가 부자가정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임.(부자가정은 취업자 중 75.4%가 상시고용. 한편 모자가정은 상시고용은 50.7%, 수입평균은 부자가정이 422만 엔, 모자가정은 229만 엔이며 주택소유비율도 낮음)
- 부자가정, 모자가정의 수입상황은 부자가정의 평균은 연간 320만 엔, 모자가정의 경우는 162만 엔으로 되어있음. 다만 일반적인 가정은 500만 엔대로 되어있어 부자·모자 어느 쪽이건 일반적인 가정보다 낮음. 또한 모자가정 중 생활보호를 받은 가정의 자녀 4할이 성인이 된 후에 생활보호를 받고 있음.



5. 행정지원

- 한부모 가정은 양친이 있는 가정에 비해 경제적, 정신적인 불안정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육아, 의료 등에 조성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지자체에 의한 지원제도는 부자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모자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에 부자세대의 자녀양육 서포트제도가 갖추어져 있음. 예를 들면 아동부양수당은 모자가정에만 지급됨.
- 모자 및 과부복지법에서는 모자가정의 정의에 “등(等)”을 추가함으로써 부자가정을 포함하게 됨. 나아가 동법에서는 모자가정 등을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정하고 있음. 자녀가 20세 이상이 된 때 모자가정의 모(母)였던 여성은 ‘과부’로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부자가정의 부(父)였던 남성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됨.

- 부자가정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지원보다도 가사나 자녀양육의 상담 등의 지원 요구가 많으며 종전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부자가정의 절대 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또한 편부모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상태인 가정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나 취업상담, 또는 자녀양육의 상담창구 등을 두고 있음.

6. 관련 법률

1) 모자 및 과부복지법

1964년 7월 1일 법률제129호로 제정,
2006년 6월 2일 법률제50호로 최종개정

제3장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의 조치(제13조-제31조)

제4장 과부에 대한 복지의 조치(제32조-제35조)

<http://www.houko.com/00/01/S39/129.HTM>

2) 모자가정의 모(母)의 취업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3년 7월 24일 법률제126호로 제정,
2006년 6월 2일 법률제50호로 최종개정

<http://www.houko.com/00/01/H15/126.HTM>

<http://www.mhlw.go.jp/bunya/seikatsuhogo/seikatuhogo.html>

<http://www.houko.com/00/01/S39/129.HTM#s3>

4. 러시아⁵⁹⁾

가. 저소득 1인 가구 지원 관련 러시아 입법례

- '1인 가구(독거)'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사회적 서비스 지원 기본법'에 해당하는 「러시아연방에서의 국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기본에 관한 연방법률」에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국민 전반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포함시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러시아연방에서의 국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기본에 관한 연방법률」 제3조에서 '사회적 서비스 고객'의 개념을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으로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어려운 생활환경'이란 "국민의 생활력을 객관적으로 침해하는 환경(노동능력상실, 고령·질병으로 인한 자기돌봄의 무능력, 고아신세, 방임, 물질적 혜택이 적은 것, 실업, 일정한 거주지 부재, 가정불화 및 가정학대, 독거 등)으로 국민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없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음.
- 물질적 지원 외에, 재택 이동순회 서비스 지원, 임시 보호시설의 제공, 사회적 서비스 기관에서의 1일간 체류 서비스 제공, 상담 지원, 재활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관한 주요규정은 다음과 같음 :

59)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2008.8.

「러시아연방에서의 국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기본에 관한 연방법률」

(1995.12.10 제정 ; 2004.8.22 4차 개정)

제3조(기본개념) 2. “사회적 서비스 고객”이란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으로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민을 말한다.

4. “어려운 생활환경”이란 국민의 생활력을 객관적으로 침해하는 환경(노동능력상실, 고령·질병으로 인한 자기돌봄의 무능력, 고아신세, 방임, 물질적 혜택이 적은 것, 실업, 일정한 거주지 부재, 가정불화 및 가정학대, 독거 등)으로 국민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말한다.

제8조(물질적 지원) ①물질적 지원은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에게 현금자금, 식료품, 공중위생 및 위생 자금, 아동 돌봄 자금, 의류, 신발류 및 그밖의 생활필수품, 연료, 또한 장애인 및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의 특별 교통수단, 재활장비의 형태로 제공된다.

②물질적 지원 제공의 근거 및 절차는 러시아연방주체(主體)(역주: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공화국·지방·주·자치구 등을 일컬으며, ‘지방’에 해당함)의 집행권력기관(역주: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함)이 정한다.

제9조(재택(在宅) 사회적 서비스) ①재택 사회적 서비스는 지속적 또는 일시적인 이동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써 실시된다.

②고령, 질병, 노동능력상실과 관련하여 자기돌봄 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독거 국민 및 국민에게 생활원호 서비스, 사회적·의료 서비스 및 그밖의 지원 형태로 재택 지원을 제공한다.

제10조(상설기관에서의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상설기관에서의 사회적 서비스는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능력을 상실하여 지속적으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써 실시되고, 이들의 연령 및 건강상태에 부합되는 생활력 여건 조성, 의학적·심리학적·사회적 성격의 조치 수행, 급식 및 돌봄, 또한 체력에 알맞은 근로활동·휴식 및 여가 조성을 보장한다.

제11조(임시 보호시설의 제공) 사회적 서비스 특수기관 내의 임시 보호시설은 고아, 부모의 후견 없이 남겨진 아동, 방임된 미성년자,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인 아동, 일정한 거주지 및 일정한 직업이 없는 국민, 육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자연재해·군사분쟁 및 인종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 임시 보호시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그밖의 사회적 서비스 고객에게 제공된다.

제12조(사회적 서비스 기관에서의 1일간 체류의 조성) 사회적 서비스 기관에서 1일 동안 생활원호, 사회적·의학적 및 그밖의 서비스가 자기돌봄 능력 및 활발한 이동 능력을 보유한 고령자 및 장애인, 또한 그밖의 자(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미성년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된다.

제13조(상담 지원) 사회적 서비스 기관에서 사회적 서비스 고객에게 생활원호 보장 및 생활력을 위한 사회적·의학적 보장, 심리학적·교육학적 지원, 사회적·법적 보호 문제에 따른 상담이 제공된다.

제14조(재활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는 장애인, 한정능력자, 미성년 범죄자,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하여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밖의 국민에게 직업재활, 사회적 재활, 심리적 재활 지원을 제공한다.

제15조(사회적 서비스료) ①사회적 서비스는 무료 사회적 서비스 및 유료 사회적 서비스로써 실시된다.

제16조(국가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무료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근거) ①국가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무료 사회적 서비스는 사회적 서비스 국가기준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된다.

1. 지원 및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친척 연고자가 없는 자로 고령, 질병, 노동능력상실과 관련하여 자기돌봄 능력이 없는 국민 — 이와 같은 국민의 평균소득이 그가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주체에 대하여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에 한한다.
2. 실업, 자연재해, 참사와 관련하여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 군사분쟁 및 인종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
3.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미성년자

소외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V

소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1.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⁶⁰⁾

- 사회가 다변화될수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소년소녀가족, 미혼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비정상적이고 문제가 있는 가족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은 지양되어야 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변화의 한 흐름으로 인정하는 개방적인 시각이 필요함.
- 드라마나 공익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성공사례(소외가족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함.
- 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 공무원 대상 보수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내용에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민감도, 사회적 수용 및 통합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함.⁶¹⁾

60) 양옥경,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개발 방안, 보건복지포럼, 2005.5.

61)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2005.

2. 경제적 지원의 현실화⁶²⁾

- 소외가정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족, 조손가족처럼 경제활동을 담당할 사람이 없거나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처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일정한 수입원 확보가 어려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현재의 경제적 지원은 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전반적인 급여수준이 낮음.
- 특히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족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심리·정서적 발달상의 어려움은 지난 수년간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빈곤의 세대간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독거노인가족을 제외한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족, 미혼모가족은 양육 및 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있어 안정적 수입원의 확보문제는 2세대의 빈곤전략 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소년소녀가구의 경우 대부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경제적 지원이 끊어지는 것은 큰 문제임. 이것은 대학진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안정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됨. 따라서 대학진학을 원하는 소년소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이 있어야 함.

62) 박세경,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2005.5.

- 가구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기초생활보장이 되려면, 가구원의 근로능력, 질병 또는 장애 유무, 간병 및 보육의 필요성, 가구주의 직종의 특성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년소녀가구에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수당, 저소득가구 혹은 한부모가족은 보육료 또는 교육비, 독거노인가구에는 경로연금 등의 부가급여가 지원되고 있지만 급여수준이 미흡함. 급여수준 현실화가 필요함.
- 가족원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가족원이 완전히 해결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음.

3. 전문적 상담 및 정서적 지원 확대⁶³⁾

-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 그쳤던 가족지원을 정서적인 지원까지 확대·강화해야 함. 경제적 불황, 이혼의 증가 등 개인의 힘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 속에서 가족이 대처해야하고 적응해야 할 상황은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어떤 가족형태든지 그 구성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
- 다양한 유형의 가족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폭력과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게 됨. 질병의 차원이라기보다 건강의 차원에서 지원을 제공해야 함.

63) 양옥경,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개발 방안, 보건복지포럼, 2005.5.

- 독거노인가족은 성인자녀에 대한 서운함, 소외감, 고립감,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한부모가족은 별거 또는 이혼의 경험으로 우울감이 높고 절망감,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이 높음.
- 미혼모가족의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죄의식으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됨.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아동의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가족의 고유기능인 정서적 유대와 지지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가족단위의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함. 이를 위해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인 행정부서의 아동상담원, 부녀상담원,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전문적 상담기술 교육이 필요함.
- 가족종합상담서비스를 전담할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법)에서의 가족유형별 전문상담을 활성화해야 함. 또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기능강화사업 및 가족복지서비스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가족의 다양한 유형이나 형태와는 별도로 어느 가정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폭력이나 학대, 알콜중독, 자살, 사고 및 장애발생 등의 위기적인 사건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4. 가족지원 서비스의 다양화와 확대⁶⁴⁾

- 이혼 및 재혼 등으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소년소녀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증가할 것임.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고려한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임.
- 한부모가족은 2000년 전체 가구의 7.9%에서 2005년 8.6%로 증가하였음. 5년간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을 살펴보면, 사별 2000년 44.7%→2005년 36.6%, 이혼 2000년 21.9%→29.19%, 미혼 한부모가구 2000년 0.9%→2005년 18.9%, 유배우임에도 한부모가구 2000년 22.5%→2005년 23.9%로 변화하였음.
- 이처럼 한부모가족 형성 요인이 이혼, 사별 등 다양하고, 연도에 따라 요인이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함.
- 다양한 가족유형의 증가 추세를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빈곤가정, 모자 가정 등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요보호가족 중심의 서비스만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특수한 욕구와 필요를 고려한 실용적 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즉,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소외가 없도록 다양한 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64)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2005. 재정리.

5.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⁶⁵⁾⁶⁶⁾

- 경제적 빈곤은 영양상태 및 위생상태 불량으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함. 가족구성원 중 만성질환이나 암 등 의료비지출이 큰 질병을 앓게 되면 가족전체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됨.
- 차상위계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를 지원하고 장애 및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외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건강상태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연령에 따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달리해야 함.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아동들은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생활습관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므로 아동영양상태 점검 및 결식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함.
- 단순히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보험료 감면, 경감 같은 경제적 대책 이외에도 보건소의 공중보건의나 간호사 등이 관할 지역의 소외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점검 및 건강상담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65) 여성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2001.

66)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여성부, 2007.

VI

참 고 문 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6.7.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06. 12.
- 통계청, 2007 출생통계 결과, 2008.8.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11.
- 통계청, 추계인구·가구 자료, 2007.
- 통계청, 65세이상 노인의 혼인상태별 현황, 2008. 7.
- 통계청, 2007 이혼통계 결과, 2008. 4.
- 조광영, 한국의 빈곤과 가족해체에 관한 연구, 2003.
-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1982.
-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2004.
- 김승권,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2007. 5.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2008. 3.
-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외, 최근 가족해체 실태와 복지대책, 2000.
- 여성가족부,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2007. 12.
- 최경석 외,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2003.
- 여성가족부, 모·부자복지시설 운영모델 개발 기초연구, 2006.
-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2005. 12.
- 김승권, 한국 가족의 동향과 발전방향, 한국여성단체연합 전문가간담회, 2004.
- 보건복지부·한국노인문제연구소,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초조사, 2006.

- 정경희, 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2004.
- 행정자치부, 2003~2007정책백서, 2008.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노인복지시설현황, 2008.3.
-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냉·난방 실태조사 결과, 2008. 7.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2008.
- 200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2008.
- 장혜경,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2001.
-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2001.
- 보건복지포럼,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생활지원방안, 2000.5.
- 질병관리본부, 2006청소년건강행태, 2007. 7.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2006.
- 양옥경,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개발 방안, 보건복지포럼, 2005. 5.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2005.
- 박세경,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2005. 5.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자료 - 해외사례 참고문헌>

- <http://www.acf.hhs.gov/programs/ofa/tanf/index.html>
- <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 <http://www.fns.usda.gov/fsp/>

- <http://www.fns.usda.gov/fsp/faqs.htm#2>
- http://www.cms.hhs.gov/MedicaidEligibility/02_AreYouEligible_.asp#TopOfPage
- <http://www.nga.org/Files/pdf/000111PREGNANCY.pdf>
- <http://www.dcf.state.fl.us/indliving/docs/IndLivingHHF20080108.ppt>
- <http://www.hmrc.gov.uk/dmg/index.htm>
- http://www.direct.gov.uk/en/MoneyTaxAndBenefits/TaxCreditsandChildBenefit/TaxCredits/DG_073939
- http://www.direct.gov.uk/en/MoneyTaxAndBenefits/BenefitsTaxCreditsAndOtherSupport/Expectingorbringingupchildren/DG_10018808
- http://www.direct.gov.uk/en/Parents/Moneyandworkentitlements/YourMoney/DG_4003043
- http://www.everychildmatters.gov.uk/_files/teenpreg.zip
- <http://www.everychildmatters.gov.uk/socialcare/childrenincare/leavingcare/>